

가치지향적 소비를 위한  
기업행동 이력평가

만점팀

『가치지향적 소비를 위한 기업행동 이력평가』 연구는 희망제작소의 시민연구 지원사업인 <2019 온갖 문제연구- 궁금한 김에 연구>에 선정된 아래 연구진이 수행했습니다.

### 참여 연구진

시민연구자 만점팀

- 조효진, 정혜정, 이성화, 주영진, 박민정

<2019 온갖문제연구- 궁금한 김에 연구> 연구보고서는 희망제작소와 사전협의 없이 무단도용, 전재 및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2019 온갖문제연구- 궁금한 김에 연구> 연구보고서는 시민연구 지원사업으로 희망제작소 입장과 무관합니다.

## 목 차

### I. 연구 개요

1. 연구 동기
2. 연구 목표
3. 선행 사례 조사

### II. 연구재료

1. 언론 보도자료 활용
2. K-SDGs 유형 활용과 개선

### III.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방법 및 절차

### IV. 연구 결과

1. 빅카인즈 검색어 설정을 위한 K-SDGs 키워드 분석
2. 빅카인즈를 활용한 언론 보도자료 수집
3. K-SDGs 유형 및 긍·부정 사건 분류
4. 중복 기사 정제
5. 기업행동 DB를 활용한 기업행동 이력평가

### V. 정보 공유를 위한 시각화 및 웹페이지 제작

1. 시각화
2. 웹 페이지 제작

### VI. 다양한 이해당사자 의견 듣기

### VII. 연구를 마치며

[부록] 다양한 이해당사자 의견 듣기 세부 결과

# I. 연구 개요

## 1. 연구 동기

일본의 경제 제재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불매운동을 진행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개인의 만족만을 위해 소비하지 않는다.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환경, 젠더,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로 이어지길 바란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건씩 쏟아지는 뉴스와 보도 속에 살고 있다. 이들은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지만, 때로는 그 정보의 방대함이 사건 전체를 바라보기 어렵게 만든다. 즉, 매일 쏟아지는 정보에 묻혀, 우리에게 기업이 어떠한 영향을 끼쳐왔는지 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지향적 소비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행위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시민들이 언제든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MZ세대의 소비 문화

환경, 젠더,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고 삶의 가치에 대한 결정권  
또한 스스로 가치기를 원합니다.  
<출처 싱글리스트, 에디터 용원중>



### 언론의 영향이 약화된 현실

언론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줍니다. 하지만 뉴스의 흥수 속에서  
시민들이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언론 기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기업행동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연구 목표

우리의 연구 목표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 환경, 젠더, 지속가능성 등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 기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K-SDGs 17가지 목표별로 기사를 분류한다. 두 번째, 분류된 기사를 활용해 기업을 평가하고 결과를 시각화한다. 세 번째, 프로젝트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한다. 이로써 시민이 기업의 행동을 인지하고, 견제하며,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지원하는, 가치지향적 소비문화를 만들어간다.

### 1

#### 가치관별 기업 평가

환경, 젠더, 지속가능성 등 개인의 가치관에  
맞게 기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K-SDGs의  
17가지 목표에 맞춰 기사를 분류합니다.

### 2

#### 한눈에 쉽게 판단

17가지 목표를 기준으로 분류된 기사를  
기업별, 가치관별, 시간별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시각화합니다.

### 3

#### 시민이 주도하는 가치경제

프로젝트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시민이 주체가 되어 기업을 관찰, 견제하고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 3. 선행 사례 조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에서 ISO26000, GRI standards 등과 같은 지침을 마련했고, 기업은 해당 지침을 반영하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즉, 기업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통해 자발적으로 재무적·비재무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계도 있다. “국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현황과 시사점(윤진수, 2009)”에서는 융통성 있는 정보 공개 방식으로 인해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한계로 제시했다. 또한, ISO26000과 GRI standards 분석 지표에는 시민의 관심사를 직접 반영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긍·부정 활동을 포괄하는 언론 보도를 활용하여 시민 주체의 기업행동 분석을 수행하고자 했다. 또한, 분석의 기준으로는 시민의 관심사를 직접 반영한 K-SDGs 17개 목표를 적용했다. 본 연구의 결과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기업의 영향력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표 1〉 선행 사례와의 비교

구분	기업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기업행동 이력 평가(만점)
반영 지표	ISO26000, GRI standards 등	K-SDGs(국가지속가능발전 목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제시된 지침으로 노동관행, 환경 등에 대한 평가 기준 제시 (전문가 의견수집을 통해 제정)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시된 목표로 건강, 일자리 등에 대한 평가 기준 제시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제정)
평가 주체	기업의 자발적 분석 후 제 3자에게 검토 의뢰	시민연구자 주체로 분석 후 공개 및 추가 의견수렴
분석 자료	기업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의 외부 수집이 어려움	언론 보도자료로 시민이 수집하기 쉬운 자료
단점	융통성 있는 정보 공개와 검증기관의 검증 기준 차이로 인한 정보 수준 및 공개방식 불일치 / 기업의 부정적 행위 정보 빠짐	이슈 중심의 정보 수집 / 기업에 대한 국민 관심도 차이에 따른 정보량 편차 및 기업의 특정 행동에 대한 구체적 수치 정보 부족
장점	기업 행위에 대한 구체적 수치 정보를 포함	시민의 관심사를 반영한 지표 활용 / 긍정 및 부정 행동을 포괄한 종합적 분석

## II. 연구자료

### 1. 언론 보도자료 활용

기업의 행동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로 뉴스, 신문 등의 언론 보도를 활용했다. 언론 보도는 기업행동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고, 접근하기 쉽고, 분석에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구축되어 있다는 이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물론 단점도 있다. 여러 언론사에서 하나의 사건을 중복으로 보도하여 단순히 기사의 보도 건수로 실제 사건의 발생 건수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과 언론사에서 다루지 않은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주요한 단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복 보도를 정제할 방법을 고안하여 사건의 실제 발생 건수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 통계자료, 시민제보 등 추가적인 정보와의 연계는 본 연구 진행 후 추후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 ✓ 언론 보도의 장점

- (기업행동에 대한 정보량 풍부) 언론사는 시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므로 그만큼 많은 정보를 생산해낸다. 세상이 돌아가면서 내는 사골벽적한 소리를 모아 언제든 볼 수 있는 텍스트 형태의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텍스트 형태의 정보는 국가통계자료 등의 정형데이터와 달리 세부적인 사건과 맥락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기업의 사건·사고, 사회공헌 활동 등의 행동 정보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가 주요한 정보전달 매체라고 볼 수 있다.
- (높은 접근성) 언론 보도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이다. 공공기관 입증절차나 별도의 정보 공개 요청 없이 원하는 정보를 검색을 통해 얻을 수 있다.
-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 언론진흥재단은 54개 언론사의 보도를 모아 자료 검색, 분석, 데이터 내려받기 기능을 제공하는 '빅인ائز'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다. 원하는 키워드로 관련 기사를 검색하면 발간일, 제목, 기사 내용 등을 한 번에 내려받을 수 있다.

#### ✓ 언론 보도의 단점

- (중복 보도 문제) 단일사건을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하여 생기는 중복 보도 문제가 있다. 중복 보도 건수를 사건의 영향력 혹은 국민의 관심도로 판단하거나, 사건의 실제 발생 시점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지만, 중복 보도로 인해 실제 사건의 발생량을 파악하기 어려워지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복 보도를 정제할 방법을 고안하여 사건의 실제 발생 건수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4장의 4 참고)
- (보도 누락 문제) 언론에서 취재할 수 없거나, 보도되지 않은 사건이 있으면,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 국가 통계자료 연계, 시민제보 수렴 등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자 한다.

### 2. K-SDGs 유형 활용과 개선

#### 1) K-SDGs 소개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인류 공동의 목표로 17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 및 23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Bottom-up(상향식 접근)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며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K-SDGs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기틀 하에 국가균형발전, 남북 간 평화, 저출산 고령화 대비 등을 포함하여 우리 고유의 사회발전 비전을 담은 2030 국가 비전이다(환경부, 2018).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마찬가지로 청년, 노인, 장애인, 여성, 전문가, 노동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켜나가야 할 17개 목표, 122개 세부 목표, 214개 지표체계를 만들었다. 따라서 K-SDGs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우리 모두의 약속이자, 우리나라 시민의 참여 의지를 담은 목표이기에 우리는 가치지향적 소비를 위한 기업평가에 K-SDGs 목표를 반영하고자 했다. 즉, 교육, 일자리, 건강 등 K-SDGs 목표별로 기업의 행동을 평가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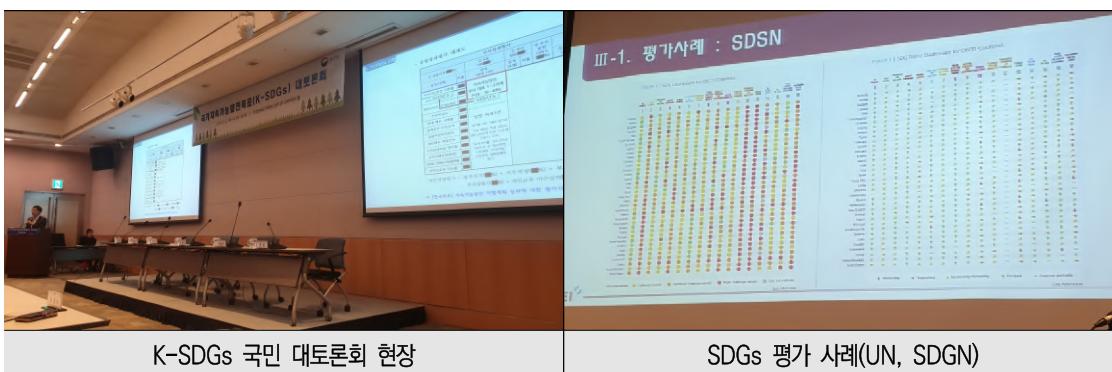


\* 출처 : 환경부, 국가지속가능발전 포털(<http://ncsd.go.kr/ksdgs>), 2020.02.06. 기준

## 2) K-SDGs 국민 대토론회 의견 반영

2019년 12월 3일 개최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국민 대토론회’에 참가하여 ‘K-SDGs 수립 현황 및 이행평가 방안’에 대한 발표를 들었다. 또한, 본 연구와 관련하여 K-SDGs를 활용한 기업평가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환경부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현재 K-SDGs 지표는 확정상태가 아니며 ‘20년에도 지속적으로 작업반을 운영하여 세부 목표와 지표를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 노인, 생태계에 대한 세부 목표가 추가되어야 한다. 둘째, K-SDGs 이행평가에 대하여 이행 주체, 이행평가 방안, 시각화 및 결과 공유 방안도 확정되지 않았다.

환경부 답변을 통해 기업에 맞는 K-SDGs 세부 목표가 추가될 필요성이 있음을 알았다. 또한, 현재 확정된 평가방안 부재함을 알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SDGs 세부 목표를 기업평가에 활용할 때, 다음의 절차를 따르기로 했다. 첫째, 현 K-SDGs 목표 및 세부 목표 체계에 맞춰 기업행동을 분류한다. 둘째, 어떠한 목표도 포함할 수 없는 행동이 있으면 세부 목표를 추가한다. 셋째, 유사한 세부 목표가 있으나 기업이라는 대상에게 맞지 않는 용어가 있으면, 기업에 맞추어 세부 목표를 개선한다.



### 3) K-SDGs 목표를 반영한 기업평가 틀(안)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5개 기업의 행동을 조사하여 K-SDGs의 목표를 반영한 기업평가 틀을 만들었다. 기업 행동별로 가장 합치되는 목표와 세부 목표에 맞추어 평가 내용과 기업행동 사례를 정리했다. K-SDGs 이행평가 방법에 따르면 단일 행동으로 발생한 사회적 효과가 2개 이상일 경우, 해당하는 모든 목표에 이행 현황이 반영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 세부목표별로 포함하는 기업행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했다.

〈표 2〉 K-SDGs 목표를 반영한 기업평가 틀(안)

K-SDGs 목표 반영		기업행동 조사 결과 반영		
목표	세부	세부 목표에 따른 평가 내용		기업행동 사례
1	빈곤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1-3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생계지원, 후원금 기부, 난방유, 급식비 지원 등</li> </ul>
2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2-2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가 및 농업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 일손돕기 활동, 지역 농가 유통지원, 청년 농부 육성 등</li> </ul>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3-1	만성질환 및 위험요인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치매 예방 캠페인, 독거노인 안부 전화 서비스 등</li> </ul>
		3-2	정신건강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 및 청소년 심리치료 프로그램, 직원 우울증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li> </ul>
		3-3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 및 부상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후시설 안전관리 지원, 안전훈련 지원, 심폐소생술 교육 등</li> </ul>
		3-7	유해 화학물질, 대기, 물, 토양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 건강피해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암물질,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부정사례)</li> </ul>
		3-8	저출생 극복 및 영유아 보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장 어린이집 운영, 돌봄 육아 사업 운영, 산모 건강관리 지원 등</li> </ul>
		3-9	의료지원 및 의료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병원 건강검진 협약, 장애아동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li> </ul>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4-2	초등교육 및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체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화감상 지원, 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체험 지원 등</li> </ul>
		4-4	청소년 진로 교육 및 청년 취·창업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업 및 창업 교육, 진로 맞춤 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 등</li> </ul>
		4-5	교육에서의 불평등 해소 및 취약계층 교육 접근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소득층 공부방 지원, 소외지역 도서관 설립 및 재능기부, 장애인 교육 등</li> </ul>
		4-7	인성, 세계시민의식, 생명존중, 환경보호, 역사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인성교육, 역사캠프, 생명존중 문화교육,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산 활동 등</li> </ul>
5	성 평등 보장	5-2	성폭력 및 성범죄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희롱(부정사례), 지하철 성범죄 예방,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활동 등</li> </ul>
		5-4	여성 고용 및 리더십 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 고용률 증가, 여성 임원 증가, 여성 창업 지원, 남녀 고용 평등 우수기업 선정 등</li> </ul>
		5-7	여성 권한 강화를 위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데이트 폭력 논란 모델 광고(부정사례), 성 평등 문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 등</li> </ul>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7-2	신재생 에너지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풍력, 태양광, 수소 에너지 등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기술개발 및 지원</li> </ul>
		7-3	에너지 절약 및 효율 증대, 온실가스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소 소비량 감축 기술개발, 배터리 절감 기술개발, 에너지 절약 등</li> </ul>
8	좋은 일자리	8-1	지역사회 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에 기부 등</li> </ul>

K-SDGs 목표 반영		기업행동 조사 결과 반영	
목표	세부	세부 목표에 따른 평가 내용	기업행동 사례
획대와 경제성장	8-2	다양한 대상을 포용하는 일자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확대, 고졸 인재 채용 등</li> </ul>
	8-5	청년 고용률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자리 창출 투자, 고용 창출</li> </ul>
	8-6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재해(부정사례), 산업안전 교육, 위기관리 매뉴얼 제정 등</li> </ul>
	8-7	관광 진흥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술 지원, 관광통역 안내사 육성 등</li> </ul>
	(추가)	노동자 권리 및 노동 안정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당해고(부정사례), 노조탄압(부정사례), 워라밸 지원, 임금 인상 등</li> </ul>
9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 정보 접근성 확대 및 통신 안정성 확보</li> </ul>
		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력사, 스타트업, 중소기업 지원</li> </ul>
10	불평등 해소	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위 및 권력에 의한 갑질 철폐</li> </ul>
		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불편 해소 및 인식 개선</li> </ul>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 지원</li> </ul>
11	포용적이며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와 주거지 조성	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 접근성 증대 및 환경 개선</li> </ul>
		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 예방 및 구호 활동</li> </ul>
12	지속 가능한 소비·생산 증진	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 제품 개발</li> </ul>
		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기물의 원천 예방 및 재활용</li> </ul>
		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 경영활동</li> </ul>
14	해양생태계 보전	1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양생물종 및 서식환경 보전</li> </ul>
		1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가 및 어업인 지원</li> </ul>
15	육상생태계 보전	1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상생물종 및 서식환경 보전</li> </ul>
16	인권 정의 평화	1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인의 폭력 근절</li> </ul>
		1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근절</li> </ul>
		1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정부패와 뇌물수수 감소</li> </ul>
		1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정보 및 디지털 인권 보호</li> </ul>
17	국제협력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도국 등에 대한 국제적 협력 증진</li> </ul>
<p>* K-SDGs 6번 목표(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는 상수도 보급, 하수처리 등의 세부 목표를 포함하여 기업행동을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목표라 판단하여 제외</p> <p>* 13번 목표(기후변화 대응)는 기업행동 특성상 7번 목표(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에 포함되는 행동과 일치하여 7번 목표로 통합. 17번 목표(국제협력)는 국제 구호 및 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평가</p>			

### III.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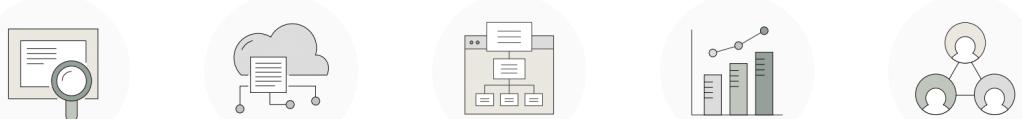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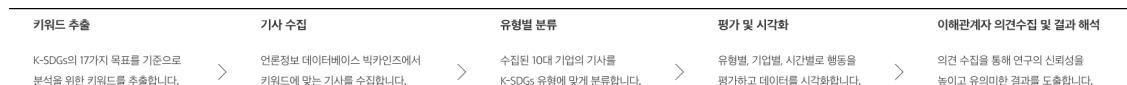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5월 상호출자제한 및 출자총액 제한을 목적으로 총 59개의 기업집단(그룹) 지정현황을 공개했다. 분석대상 설정 시 기업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언론 자료 데이터 확보가 쉽고, 사회적 파급력과 책임 또한 크다는 가정하에 매출액 기준 상위 20% 기업집단을 선발했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12개 기업집단 중 무작위로 선정하여 차례로 기업행동을 분석했고, 이번 연구기간 동안 분석을 완료한 기업은 롯데, 포스코, 한화, 지에스, 케이티 총 5개 기업이다.

〈표 3〉 상위 20% 기업집단 및 분석 완료 기업

구 분	내 용
매출액 기준 상위 20%(12개) 기업집단 선발	• 삼성, 포스코,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지에스, 롯데, 한화, 농협, 현대중공업, 신세계, 케이티
분석 완료 기업(5개)	• 포스코, 지에스, 롯데, 한화, 케이티

#### 2. 연구방법 및 절차

키워드 추출, 기사수집, 유형별 분류, 평가 및 시각화, 이해관계자 의견수집 및 결과해석의 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 도구로는 R, 파이썬, SQL, 엑셀, 빅카인즈를 활용했다.



#### ✓ 연구방법

- (키워드 추출) 언론 보도 검색어 설정을 위하여 K-SDGs를 구성하는 주요 키워드를 word cloud로 그리고 각 키워드의 빈도수를 분석함
- (기사수집) GS, 한화, KT, 롯데, 포스코 등 기업별 기사수집 - 언론 빅데이터 서비스 빅카인즈 활용
- (유형 분류) DTM(Document to matrix)를 이용해 유사한 행동을 보도한 문서를 군집화하여 분류하고, 행동별 K-SDGs 유형과 긍정 및 부정 여부를 연구진 토의를 통해 결정함. 이후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분류 결과를 학습데이터로 입력하여 문서 분류, K-SDGs 유형 및 긍·부정 분류를 자동화하였음
- (평가 및 시각화) 유형별, 기업별, 시간별로 기업의 행동을 평가하고 데이터를 시각화함
- (이해관계자 의견수집 및 결과해석) 설문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시민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집하여 향후 연구 방향을 설정함. 또한, 지속적으로 기업분석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웹을 구축함

## IV. 연구 결과

### 1. 빅데이터 검색어 설정을 위한 K-SDGs 키워드 분석

환경부 지속가능발전 포털에서 제시하고 있는 K-SDGs의 17개 목표와 122개의 세부 목표에 포함된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2회 이상의 출현 빈도를 가지는 주요 키워드를 반영하여 기업별 행동 관찰을 위한 기사수집 검색어로 활용했다.

 K-SDGs Word cloud	<b>검색어 예시</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목표</th><th style="text-align: center;">검색어</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td>(롯데 OR 포스코 OR 한화 OR GS OR KT) AND (기계 OR 근로빈곤층 OR 기초생활 OR 남녀노소 OR 빈곤인구 OR 빈곤층 OR 사각지대 OR 사회보장제도 OR 사회서비스 OR 생계 OR 수급자 OR 안전망 OR 저소득 OR 저소득층 OR 취약계층 OR 취약층...)</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td>(롯데 OR 포스코 OR 한화 OR GS OR KT) AND (기축 OR 농가 OR 농기소득 OR 농경지 OR 농업 OR 농작물 OR 밭 OR 농지 OR 식량 OR 종자 OR 농촌...)</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td>(롯데 OR 포스코 OR 한화 OR GS OR KT) AND (김연병 OR 건강검진 OR 건강보장 OR 결핵 OR 고령인구 OR 약물 OR 공공보건 OR 교통사고 OR 당뇨병 OR 만성질환 OR 미세먼지 OR 발병 OR 사망 OR 통증...)</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height: 20px;">...</td><td></td></tr> </tbody> </table>	목표	검색어	1	(롯데 OR 포스코 OR 한화 OR GS OR KT) AND (기계 OR 근로빈곤층 OR 기초생활 OR 남녀노소 OR 빈곤인구 OR 빈곤층 OR 사각지대 OR 사회보장제도 OR 사회서비스 OR 생계 OR 수급자 OR 안전망 OR 저소득 OR 저소득층 OR 취약계층 OR 취약층...)	2	(롯데 OR 포스코 OR 한화 OR GS OR KT) AND (기축 OR 농가 OR 농기소득 OR 농경지 OR 농업 OR 농작물 OR 밭 OR 농지 OR 식량 OR 종자 OR 농촌...)	3	(롯데 OR 포스코 OR 한화 OR GS OR KT) AND (김연병 OR 건강검진 OR 건강보장 OR 결핵 OR 고령인구 OR 약물 OR 공공보건 OR 교통사고 OR 당뇨병 OR 만성질환 OR 미세먼지 OR 발병 OR 사망 OR 통증...)	...		
목표	검색어										
1	(롯데 OR 포스코 OR 한화 OR GS OR KT) AND (기계 OR 근로빈곤층 OR 기초생활 OR 남녀노소 OR 빈곤인구 OR 빈곤층 OR 사각지대 OR 사회보장제도 OR 사회서비스 OR 생계 OR 수급자 OR 안전망 OR 저소득 OR 저소득층 OR 취약계층 OR 취약층...)										
2	(롯데 OR 포스코 OR 한화 OR GS OR KT) AND (기축 OR 농가 OR 농기소득 OR 농경지 OR 농업 OR 농작물 OR 밭 OR 농지 OR 식량 OR 종자 OR 농촌...)										
3	(롯데 OR 포스코 OR 한화 OR GS OR KT) AND (김연병 OR 건강검진 OR 건강보장 OR 결핵 OR 고령인구 OR 약물 OR 공공보건 OR 교통사고 OR 당뇨병 OR 만성질환 OR 미세먼지 OR 발병 OR 사망 OR 통증...)										
...											

### 2. 빅데이터를 활용한 언론 보도자료 수집

빅데이터에 작성한 검색식을 넣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1월 7일 동안의 기사를 수집하였다. 기사수집 조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표 4>와 같다.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활용하여 수집한 기사는 총 6,668건이었으며, 단순 투자 및 주가 정보, 사설, 논평 등을 기업의 사건, 사고 혹은 사회공헌 활동을 다루기보다는 주가 동향 및 개인적 의견이 내용의 주를 이루었으므로, 분석 목적에 맞지 않아 제외하였다. 이로써 GS, 한화, KT, 롯데, 포스코 기업집단의 교육, 건강, 일자리 등 K-SDGs 목표별 행동을 보도한 3

개년 기사 DB를 구축하였으며, 총 기사 건수는 4,490건이었다.

<표 6> 기사수집 조건 및 결과

구 분	내 용
기사수집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집 기간) 20170101~20191107, 3개년</li> <li>• (대상 기업) GS, 한화, 포스코, 롯데, KT, 총 5개 기업집단</li> <li>• (키워드) K-SDGs 기반 17개 목표에 관한 키워드 분석 결과 활용</li> <li>• (검색방법) 제목 기준으로 검색</li> <li>• (언론사) 중앙지, 경제지, 지역중합지, 방송사, 전문지에 해당하는 54개 언론사의 보도자료 수집</li> </ul>
총 수집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6,668건의 기사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S 621건, 한화 747건, KT 3,236건, 롯데 1,061건, 포스코 1,003건</li> </ul> </li> <li>• 단순 투자 및 주가 정보, 사설, 논평 등을 제외하여 총 4,490건의 기사로 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S 209건, 한화 537건, KT 2,217건, 롯데 784건, 포스코 743건</li> </ul> </li> </ul>

### 3. K-SDGs 유형 및 긍·부정 사건 분류

#### 1) 연구진 토의를 통한 K-SDGs 유형 및 긍·부정 사건 분류

##### □ DTM을 활용한 문서 분류

통계프로그램 R의 DTM(Document To Matrix)를 활용하여 수집한 기사를 분류했다. DTM은 문서 간 키워드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문서 간 거리를 측정하고 거리가 가까운 문서끼리 군집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문서 분류 결과, 기간이 다르더라도 같은 주제를 가지는 문서를 하나의 군집으로 분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 문서 군집별 K-SDGs 유형 및 긍·부정 판단

문서 분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군집의 언론 보도자료가 나타내는 내용을 파악하고, 연구진 토의를 통해 K-SDGs 유형을 결정했다. 또한, 보도자료의 내용에 K-SDGs의 목표와 상응하는 행동이 나타나면 긍정(P)으로, 목표와 대응되는 행동이 드러나면 부정(N)으로 표시했다.

	E	F	G	H	I	J	K	L	M	N
	date	compa	autho	title	com	DTM	sector	sector2	토론	pn
1	20170328	국민일보	NA	[고통과처방을 나누는 기업-GS칼텍스] 아동 심리 치유 마음독독 사업 4년째	gs	1	3	3-2	건강(심리치유프로그램)	P
2	20170611	전자신문	함봉균	1만명 어린이 마음치료 나선 GS칼텍스...‘마음독독’ 우리나라 대표 심리치료 프로그램 됐다	gs	1	3	3-2	건강(심리치유프로그램)	P
3	20170726	국민일보	NA	[사랑과희망을 나누는 기업-GS칼텍스] 어린이 심리치료 프로그램 ‘마음독독’ 큰 호응	gs	1	3	3-2	건강(심리치유프로그램)	P
4	20170921	한국경제	NA	[Cover Story-GS칼텍스] 아동 청소년 1만여명 ‘마음독독’ 예술치료 여수연 문화예술공원 조성	gs	1	3	3-2	건강(심리치유프로그램)	P
5	20181128	경향신문	NA	GS, 아동 청소년 1만여명 ‘마음독독’ 심리치료 기회 제공	gs	1	3	3-2	건강(심리치유프로그램)	P
6	20170912	경상일보	최재훈	[근로자 사랑] GS포천설립법인전소 '공사 중지' 명령	gs	2	8	8-6	일자리-산업체해	N
7	20180808	매일경제	지중구	GS포천설립법인전소 폭발사고 1명 사망 4명 부상	gs	2	8	8-6	일자리-산업체해	N
8	20180808	YTN	NA	포천 GS 화학발전소 폭발사고 1명 사망 4명 부상	gs	2	8	8-6	일자리-산업체해	N
9	20180808	YTN	NA	포천 GS 화학발전소 폭발사고 1명 사망 4명 부상	gs	2	8	8-6	일자리-산업체해	N
10	20180808	YTN	NA	포천 GS 화학발전소 폭발사고 1명 사망 4명 부상	gs	2	8	8-6	일자리-산업체해	N
11	20190314	충북일보	정성숙기자	포천 GS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경기도의회 전상규명 '난항'	gs	2	8	8-6	일자리-산업체해	N
12	20190403	충북일보	정성숙기자	GS 포천석탄발전소 전상규명 없이 추진 우리 제기돼	gs	2	8	8-6	일자리-산업체해	N
13	20171109	매일경제	조성신	부산시 GS건설, 정년 해여하우스'동거동락'조성 사업 추진	gs	3	11	11-1	주거	P
14	20180730	한국경제	김태현(hy부산시 GS건설)	부산 청년 세아하우스 조성키로	gs	3	11	11-1	주거	P

1 DTM 분석 결과 ▶ 2 연구진 토의 결과 ▶ 3 K-SDGs 유형 및 긍부정 판단 결과

#### 연구진 토의를 통한 K-SDGs 유형 및 긍·부정 사건 분류 결과

#### 2) LSTM을 활용한 K-SDGs 유형 및 긍·부정 사건 분류 자동화

앞서 구축한 5개 기업의 유형 및 긍부정 분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른 기업의 기사를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했다. 활용한 도구는 Python, MySQL 등으로 기사 본문을 수집하는 데는 AsyncIO(비동기 처리 라이브러리)를, 자동 분류에는 Keras, tensorflow(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활용했다. K-SDGs 유형 분류 모델의 정확도는 74%, 긍부정 평가 모델의 정확도는 96% 였다.

964/964 [=====] - 32s 33ms/step - loss: 0.0047 - accuracy: 0.9990 - val_loss: 0.0012 - val_accuracy: 1.0000 Epoch 10/10 964/964 [=====] - 30s 32ms/step - loss: 0.0034 - accuracy: 0.9990 - val_loss: 0.0015 - val_accuracy: 1.0000 1072/1072 [=====] - 3s 3ms/step 테스트 정 확 도 : 96.2686538696289%
기사 제목 : '불법 정치후원 의혹' 수사 다시 수면 위로? KT 공식 언급 자체 / 원래 라벨 : 1 / 예측한 라벨 : 1 기사 제목 : 포스코 클린오션봉사단, 포함 바다서 해양쓰레기 5톤 수거 / 원래 라벨 : 0 / 예측한 라벨 : 0 기사 제목 : 檢, '불법 정치자금' KT 임원 구속영장 신청 또 기각 / 원래 라벨 : 1 / 예측한 라벨 : 1 기사 제목 : KT-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 안전 솔루션 공동 개발 업무협약 / 원래 라벨 : 0 / 예측한 라벨 : 0 기사 제목 : 못 데, 인도네시아 재난구호 2.3억원 성금 지원 / 원래 라벨 : 0 / 예측한 라벨 : 0 기사 제목 : KT, 산림청과 스카이십 활용 재난 관리 시연 / 원래 라벨 : 0 / 예측한 라벨 : 0

긍부정 평가 모델 결과 예시 (숫자 10이 부정, 0이 긍정을 나타냄)

#### ✓ 자동화 프로젝트 구성

- (개발 언어) Python 3.7.4, MYSQL 5.7
- (뉴스 수집 도구) AsyncIO(비동기 처리 라이브러리)
- (뉴스 분석 도구)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 keras, tensorflow

#### ✓ 뉴스 수집 절차

- 1)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 Bigkinds에서 각 17개의 가치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통해 3년간의 자료를 수집
- 2) 수집한 뉴스를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 3) 각각의 본문 내용을 python의 비동기 라이브러리인 AsyncIO를 활용해 빠른 속도로 수집
- 4) 수집한 본문을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 ✓ 뉴스 분석 절차

- 1) 5개의 기업별로 평가된 가치평가 엑셀 시트를 입력
- 2) 평가된 각각의 뉴스에 해당하는 본문을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옴
- 3) 불러온 본문을 형태소 분석하여 명사만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로 변환
- 4) Long Short-Term Memory models(LSTM) 알고리즘을 사용해 뉴스 본문 데이터와 그에 해당하는 가치를 대응 시켜 신경망을 학습
- 5) 학습시킨 신경망을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일부 데이터를 활용해 검증
- 6) 가치가 평가된 뉴스를 기준으로 그중에 긍정/부정을 대응시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학습시키고 검증

#### ✓ 결과에 대한 개발자 의견

- 1) 17개의 가치를 머신러닝을 사용해 판단하려는 경우는 최대 76%를 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뉴스를 읽고 가치를 판단하는 일도 힘든데 나쁘지 않은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의 노동을 줄여준다고 말하기엔 아쉬운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가치에 해당하는 기사 평가 자료가 늘어나면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 2) LSTM은 레이어가 많다고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낮은 레이어에서 더 높은 정확도를 보여줄 때도 있었습니다.
- 3) 가치 유형이 평가된 기사의 경우 96%에 달하는 높은 확률로 긍정과 부정 기사를 판별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 기사의 경우 비리와 관련된 기사,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와 전체적인 문맥과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판단하는 방법이 LSTM의 특성과 잘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4) 빅데이터는 기사의 제목만 제공하므로 직접 기사 본문을 수집해야 했습니다. 본문 수집부터 머신러닝을 위한 전처리 과정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정제된 데이터를 다른 연구자를 위해 추후에 공개하려고 합니다. 머신러닝에 사용한 코드는 <https://github.com/MartianLee/manju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중복 기사 정제

### 1) 기사 발간 월을 활용한 중복 기사 정제

기업별 행동을 담은 언론 보도자료 DB를 구축하고 사건별 보도 주기를 조사한 결과, 기업명, 세부 목표 유형, 긍부정 유형에 대한 조건을 일치시킬 경우, 유사한 내용을 담은 중복 보도 건은 1달 이내에 모두 포함되는 경향이 있었다. 즉 기사 발간 월을 기준으로 기사를 정제하면 언론 보도 건수가 아닌 실제 사건 발생 건수를 파악할 수 있다.

기업명, 세부목표 유형, 긍부정 조건 일치시, 기사 발간월에 따라 사건이 구분되어 동시&중복보도 정제 가능										조건 일치	
id	year	month	ym	date	compa	autho	title	com	sector	sector_id	pn
01500701	2019	1	201901	20190128	부산일보	박진숙	[단독] 통화수소 누출 시고 포스코 관계자 등 7명 입건	psc	8	8-6	N
01100611	2019	1	201901	20190129	서울신문	김정한	[단독] 10명 사장자년 부산 통화수소 사고 ... 포스코 압체 경방 과실 입건	psc	8	8-6	N
08100201	2019	2	201902	20190207	MBC	장성훈	[단독] "심장 아비라더니" 포스코 산재 은폐 의혹	psc	8	8-6	N
08100201	2019	2	201902	20190208	MBC	장성훈	부검해보니 장기 파이 포스코, 산재 은폐 의혹	psc	8	8-6	N
02100201	2019	2	201902	20190208	마니투데이[정승기]	포스코·근로자 사망, 산재 가능성 제기	psc	8	8-6	N	
02100201	2019	2	201902	20190208	마니투데이[정승기]	포스코·근로자 사망, 산재 가능성 제기	psc	8	8-6	N	
02100311	2019	2	201902	20190208	서울경제	노진표 기자	포스코 직원 설 연휴 근무 중 사망 경찰 산재 가능성 수사	psc	8	8-6	N
01100801	2019	2	201902	20190208	조선일보	최효정 기자	포스코 직원 설 연휴 근무 중 사망 경찰 산재 가능성 조사	psc	8	8-6	N
02100701	2019	2	201902	20190209	헤럴드경제[테일 기]	김경규 기자	김경규 평인남 포스코 직원 사망 안타깝다	psc	8	8-6	N
02100805	2019	2	201902	20190209	아주일보	오수연	포스코·포항제철소 직원 사망 원인 규명 최선	psc	8	8-6	N
07101201	2019	2	201902	20190209	디지털경제[정현학]	포스코·포항제철소 사망 시고 은폐 아웃다	psc	8	8-6	N	
02100701	2019	2	201902	20190209	헤럴드경제[김병진 기]	포스코 직원 심정지 아닌 운전설비 중 사망 논란 경찰 2차 부검 의뢰	psc	8	8-6	N	
01100201	2019	2	201902	20190210	국민일보	포현=안경	포스코 직원 사망 원인두고 유족반발	psc	8	8-6	N
02100201	2019	2	201902	20190211	마니투데이[세종=최고증권]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망사고, 산재 가능성 있다	psc	8	8-6	N	
01500601	2019	2	201902	20190211	매일신문	백영복	포스코 보통 상파벌 의심 사망 사고 관련, 현장 직원들 "기기설비 결함에 따른 사고 가능성 높아"	psc	8	8-6	N
08100201	2019	2	201902	20190212	MBC	장성훈	[포스코·산재 은폐 의혹]"번 주 수사결과 발표	psc	8	8-6	N
01100901	2019	2	201902	20190215	동양일보	이지영(lee 경찰)	포스코 직원 사망 관련 표항제철소 압수수색	psc	8	8-6	N
01101101	2019	2	201902	20190215	한국일보	NA	포스코 직원 사망 관련 경찰 표항제철소 압수수색	psc	8	8-6	N
01100801	2019	2	201902	20190216	조선일보	박수정 기자	포스코 직원 사망 사건 경찰 15일 표항제철소 압수수색	psc	8	8-6	N
01500801	2019	2	201902	20190218	김일보	김기태기자	포스코 직원 사망 관련 3개 보서 압수수색	psc	8	8-6	N
01100801	2019	2	201902	20190219	조선일보	최지희 기자	포스코 직원 사망은 20대 인턴의 코레이인 작동 미수 때문	psc	8	8-6	N
01101101	2019	2	201902	20190219	한국일보	NA	포스코 직원 사망 관련 인턴직원 고질형의 의견	psc	8	8-6	N
01100611	2019	2	201902	20190219	서울신문	김상화	포스코 직원 코레이인 조작으로 사망, 동료 직원 과실 입건	psc	8	8-6	N
01500801	2019	2	201902	20190220	영남일보	김기태기자	포스코 직원 사망 관련 동료직원 과실형의 입건	psc	8	8-6	N
01100101	2019	2	201902	20190222	경향신문	구교령 기자	[단독]직원 산재 사망 사망에 시내 명예자로 배포 집안 단속'에만 글급한 포스코	psc	8	8-6	N
02100351	2019	3	201903	20190305	충도일보	김호경 기자	통화수소 누출 사고 포스코 관계자 2명 구속영장 기각	psc	8	8-6	N
01400351	2019	5	201905	20190513	광양포스코	황열미 기자	건설 산재사망사고 기장 많은 곳은?"포스코 10년"	psc	8	8-6	N
02100851	2019	6	201906	20190601	아주경제	조은국	광양 포스코 관계자 2명 구속 부상	psc	8	8-6	N
01600201	2019	6	201906	20190602	광주매일신문	=이선광	광양 포스코 관계자 2명 부상	psc	8	8-6	N
01100101	2019	6	201906	20190617	경향신문	정대연 기자	사망 사고·광양 포스코 근로감독에 노동자 첫 참여	psc	8	8-6	N
08100401	2019	6	201906	20190629	YTN	목발 사고	포스코 광양제철소 위반사항 455건 적발	psc	8	8-6	N

중복 기사 정제 방법 예시

### 2) 정제 결과

다수의 언론사가 동일 내용을 동시에 보도하거나,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유사한 내용으로 사건 경과를 중복 보도하는 경우를 정제하여 총 949건의 사건 발생 수를 확인했다. 긍정 사건보다 부정사건에서 사건 발생 당 보도 건수(중복 보도율)가 높게 나타났다.

〈표 7〉 중복 기사 정제 결과

구 분	보도 건수 기준(정제 전)	사건 발생 건수 기준 (정제 후)	사건 발생 당 보도 건수 (정제 전 / 정제 후)
총 기사 건수	4,490 건	949 건	약 4.73 건
긍정행동(P) 기사	1,846 건	755 건	약 2.44 건
부정행동(N) 기사	2,644 건	194 건	약 13.6 건

\* 긍정행동 기사에서 가장 중복 보도 건수가 많았던 경우는 KT의 11번 목표에 관한 기사(사건 발생 당 보도 건수 약 8.77건)였다. 재난 안전공급망 구축과 관련하여 다수의 중복 보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부정행동 기사에서 가장 중복 보도 건수가 많았던 경우는 KT의 16번 목표에 관한 기사(사건 발생 당 보도 건수 35.07건)였다. KT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다수의 중복 보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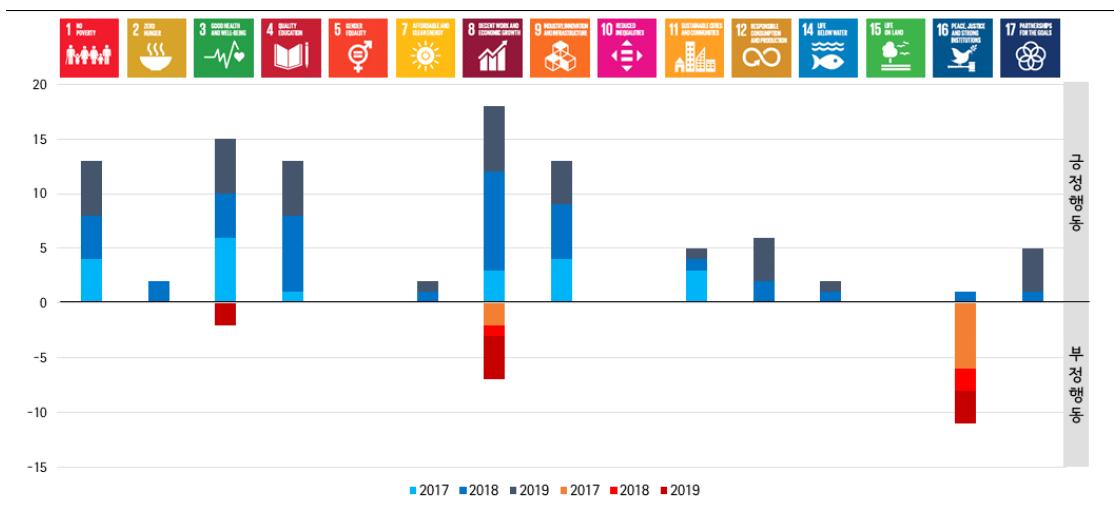
\* 보도 건수 기준 자료는 세부 로그 분석 시 사건의 발생 시기와 진행 경과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건 발생 건수 기준 자료는 K-SDGs 유형별, 기업별 행동에 대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 5. 기업행동 DB를 활용한 기업행동 이력평가

1) 기업별 평가 : 긍정행동 및 부정행동에 관한 상위 3순위 유형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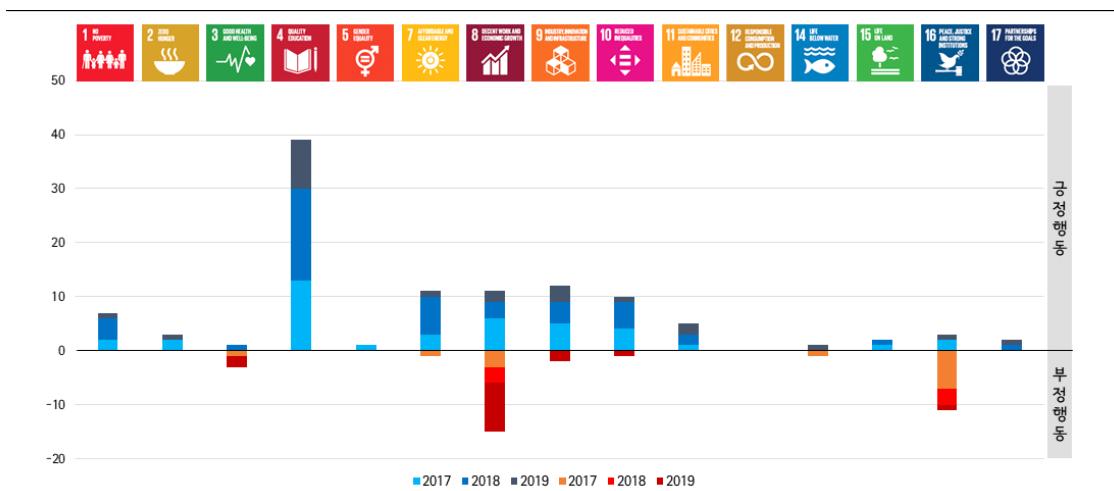
### □ GS

GS에서 긍정 행동이 다수 나타나는 유형은 일자리(8) > 건강(3) > 사회안전망 강화(1) = 교육(4) = 사회기반시설 및 경제성장(9) 이었다. 그중에서도 사회안전망 강화(1) 유형에 대한 긍정 행동은 '17년부터 '19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부정 행동이 다수 나타나는 유형은 인권·정의·평화(16) > 일자리(8) > 건강(3) 부문이었다. 일자리(8)와 건강(3)에 대한 부정행동은 '19년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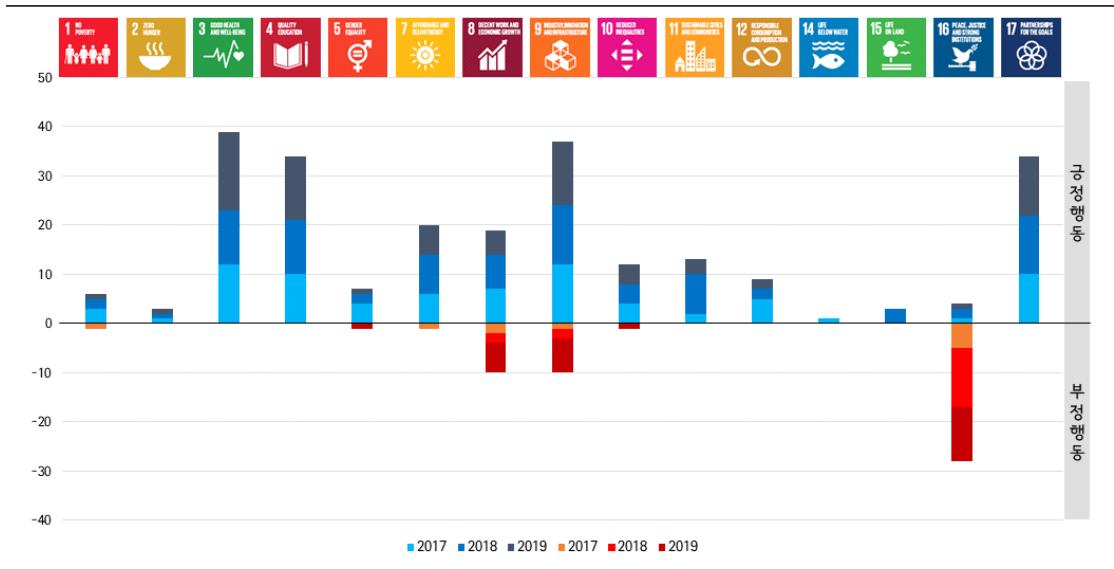
### □ 한화

한화에서 긍정 행동이 다수 나타나는 유형은 교육(4) > 사회기반시설 및 경제성장(9) > 에너지(7) = 일자리(8) 였다. 그중에서도 교육(4) 유형이 압도적으로 높은 긍정행동을 보였다. 반면 부정 행동이 다수 나타나는 유형은 일자리(8) > 인권·정의·평화(16) > 건강(3) 부문이었다. 일자리(8)에 대한 부정행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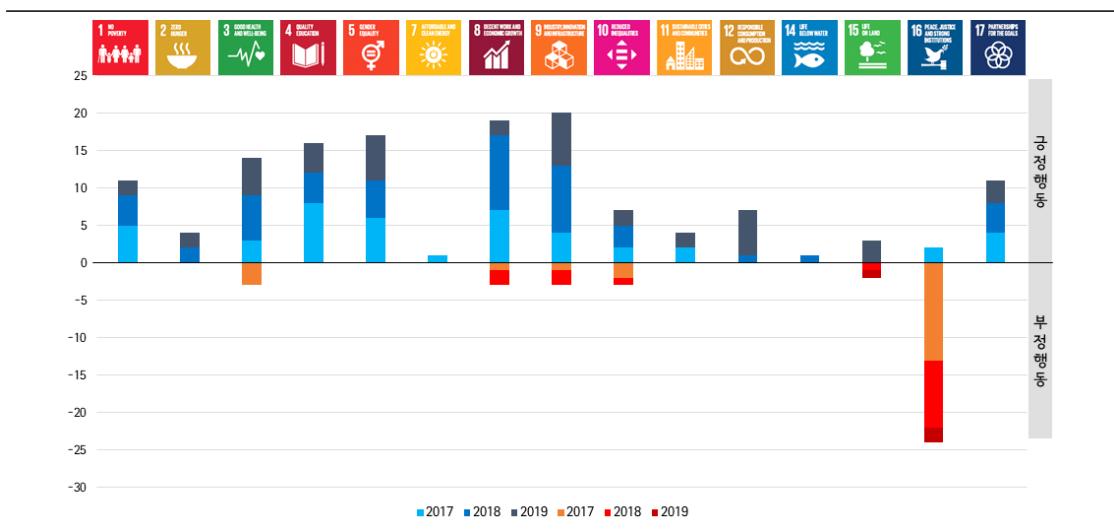
## □ KT

KT에서 긍정 행동이 다수 나타나는 유형은 건강(3) > 사회기반시설 및 경제성장(9) > 교육(4) = 국제협력(17) 이다. 건강(3), 교육(4), 국제협력(17)에 대한 긍정행동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부정행동이 다수 나타나는 유형은 인권·정의·평화(16) > 일자리(8) = 사회기반시설 및 경제성장(9) 부문이었다. 일자리(8)와 사회기반시설 및 경제성장(9)에 대한 부정행동은 '19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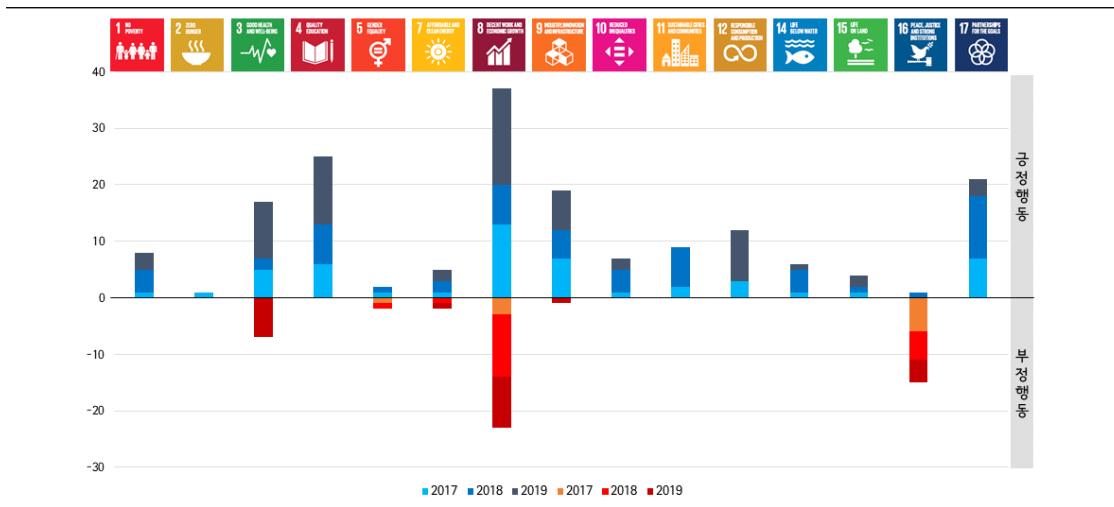
## □ 롯데

롯데에서 긍정 행동이 다수 나타나는 유형은 사회기반시설 및 경제성장(9) > 일자리(8) > 성평등(5) 이다. 건강(3), 교육(4), 국제협력(17)에 대한 긍정행동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성평등(5)에 대한 긍정행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일자리(8)에 대한 긍정행동은 감소하고 있다. 반면, 부정행동이 다수 나타나는 유형은 인권·정의·평화(16) > 불평등 해소(10) = 사회기반시설 및 경제성장(9) = 일자리(8) 유형이었다. 인권·정의·평화(16) 유형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부정행동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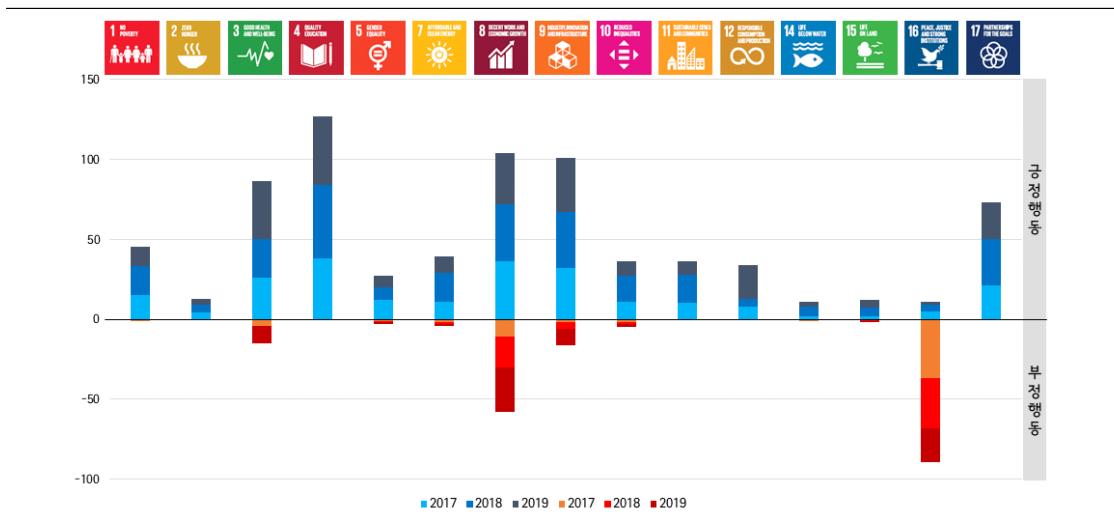
## □ 포스코

포스코에서 긍정 행동이 다수 나타나는 유형은 일자리(8) > 교육(5) > 사회기반시설 및 경제성장(9) 이다. 또한 교육(5)에 대한 긍정행동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인다. 반면, 부정행동이 다수 나타나는 유형은 일자리(8) > 인권·정의·평화(16) > 건강(3) 유형이었다. 일자리(8) 유형은 일자리 창출, 안전 예산 투자 등의 활동으로 포스코에서 가장 많은 긍정행동을 보이는 유형이기도 하지만, 부정행동도 가장 많이 나타났다. 원인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 종합

GS, 한화, KT, 롯데, 포스코 5개 기업의 긍정행동과 부정행동을 종합하였다. 긍정행동이 다수 나타난 상위 3개 유형은 교육(4) > 일자리(8) > 사회기반 시설 및 경제성장(9) 이다. 기업의 특성에 따라 취창업 교육을 진행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며,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부정행동이 다수 나타난 상위 3개 유형은 인권·정의·평화(16) > 일자리(8) > 사회기반 시설 및 경제성장(9) 이다. 일자리(8) 부문의 부정행동은 대부분 산업재해, 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이 있었고, 사회기반 시설 및 경제성장(9)에서의 부정행동은 통신재난 발생과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 등의 문제였다. 인권·정의·평화(16) 유형은 부정행동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유형으로, 기업의 각종 뇌물, 비리 사건과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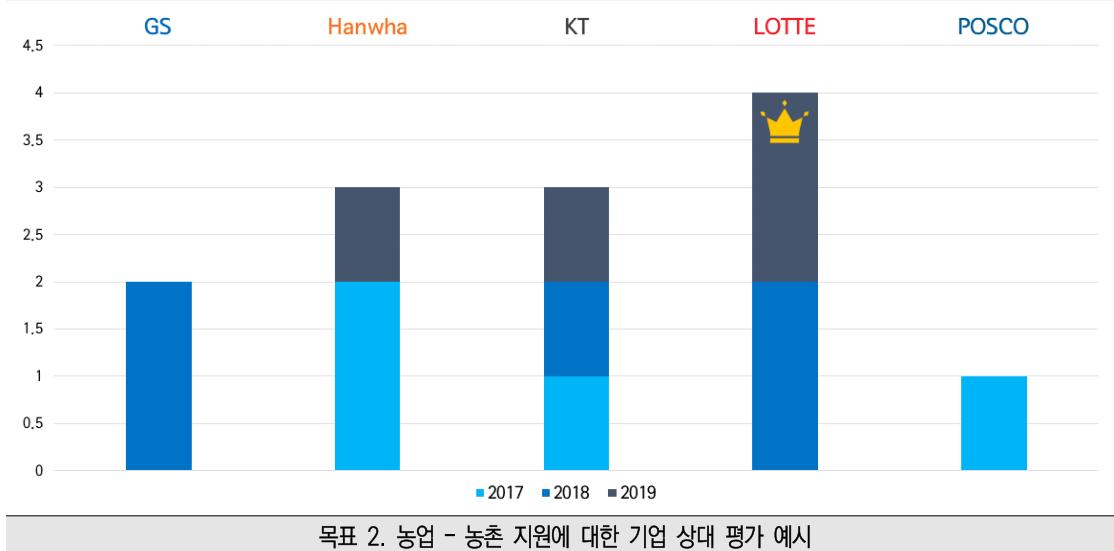
## 2) 유형별 상대 평가 : K-SDGs 17가지 유형별로 기업의 행동 이력을 상대 평가

### □ 유형별 상대 평가 예시

각자의 관심사 혹은 가치관에 따라 유형별로 기업의 행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형별 상대 평가를 진행했다. 아래의 예시를 보면 K-SDGs 2번 목표와 관련이 있는 농촌 지원 활동에 대하여 기업별 활동 목록을 만들고, 이를 그래프로 그렸다. 5개 기업 중 활동 개수와 활동 지속성 측면에서 롯데가 가장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기간에는 5개 기업만을 평가하여, 국내외 전체 기업집단과의 비교 결과는 아니라는 한계가 있지만, 평가 기업들을 늘려간다면 K-SDGs 유형별 기업 활동을 한 눈에 비교할 방법이 되리라 생각한다.

〈표 8〉 기업별 목표 2 관련 활동 목록(농촌 지원 활동)

구 분	내 용
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농가 지원 및 상호협력 MOU 체결(2018년)</li> <li>• 울릉군 특산물 유통 협력(2018년)</li> </ul>
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농연계 사회공헌 활동 - 일손돕기 봉사 및 직구매 등(2017년)</li> <li>• 한화 신임 임원 겨울철 농촌 일손돕기 활동(2017년, 2019년)</li> </ul>
K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 일손 봉사 및 실비 기부 활동(2017년)</li> <li>• 농업인 실익증진 MOU 체결 - 농기계 관리 및 농외소득 증진 등(2018년)</li> <li>• ICT 기술 활용 농촌 삶의 질 증진 사업(2019년)</li> </ul>
롯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 출연 협약 체결(2018년)</li> <li>• 청년 농부 육성 프로그램 운영(2018년, 2019년)</li> <li>• 양파 농가 돕기 - 양파데이 운영(2019년)</li> </ul>
포스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 재능 나눔- 광양제철 전기봉사단 농림부 장관상 수상(2017년)</li> </ul>



## □ 참고 이미지 모음

5개 기업에 대한 K-SDGs 목표 유형별 상대 평가 결과를 모아두었다. 전체 K-SDGs 목표에 대한 기업별 평가 결과에서는 목표별로 사건 수의 편차가 커서, 사건 수가 적은 목표의 경우에는 기업별 차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목표 유형별 기업 상대 평가가 필요하다. 동일 목표에 대한 사건 수는 기업별로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인 비교가 가능해진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긍정 행동을 많이 한 기업에 왕관 표시를 했다. 그러나 긍정 행동이 많더라도, 부정 행동도 함께 나타난다면 왕관 표시를 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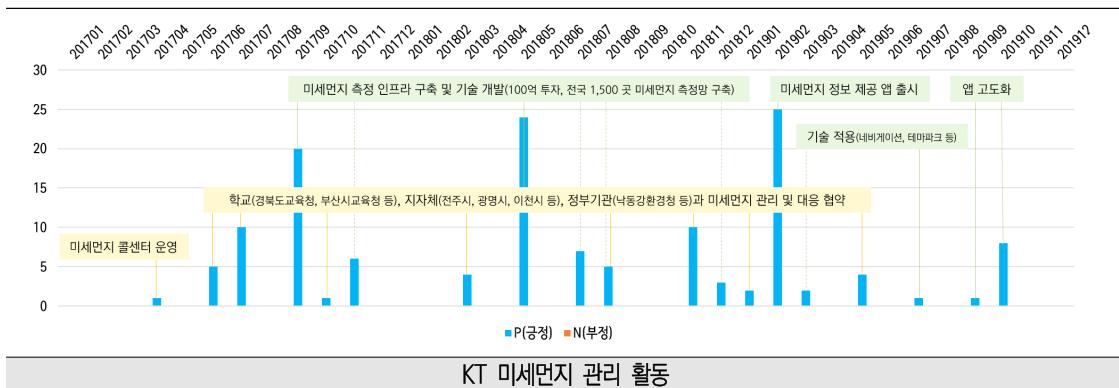


### 3) 세부 로그 분석

세부 목표에 대한 기업의 행동을 월별로 살펴보는 세부 로그 분석을 했다. 세부 로그 분석에는 월별 보도 건수 데이터를 활용했고, 주요한 사건의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사건의 내용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구하며 흥미롭게 보았던 일부 내용을 첨부하였다.

#### □ 유해 화학물질, 대기, 물, 토양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 건강피해 예방(3-7) : KT 세부 로그

KT는 미세먼지 관리 활동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지속해왔다. 미세먼지 콜센터 운영, 학교, 지자체, 정부 기관의 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 협약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행동을 했다. 또한,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하고 국민이 보다 더 촘촘한 미세먼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앱(APP)을 만들었다.



#### □ 유해 화학물질, 대기, 물, 토양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 건강피해 예방(3-7) : 포스코 세부 로그

포스코는 2017년 대기질 개선 부문 500억 투자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또한 '19년 1월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동시에 포항에서 피부병을 유발하는 슬래그 오염수를 운송과정에서 무단 방출한 혐의가 있었으며, 같은 해 2월에 수자 슬래그 설비를 승인받지 않고 운영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었다. 이후 압수수색이 조사 등이 이루어졌고, 경북도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리하여 논란이 되었다. 또한, 브리더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건에 포스코는 사실이 아니라 밝혔으나, 이후 전남도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포스코는 공장 내 친환경설비에 1조 700억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대기오염물질을 3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 □ 저출생 극복 및 영유아 보육 지원(3-8) : 포스코 세부 로그

포스코는 자사 직원에 대한 출산장려금, 난임 치료 휴가, 사내 어린이집, 자녀 취학 전 자율출근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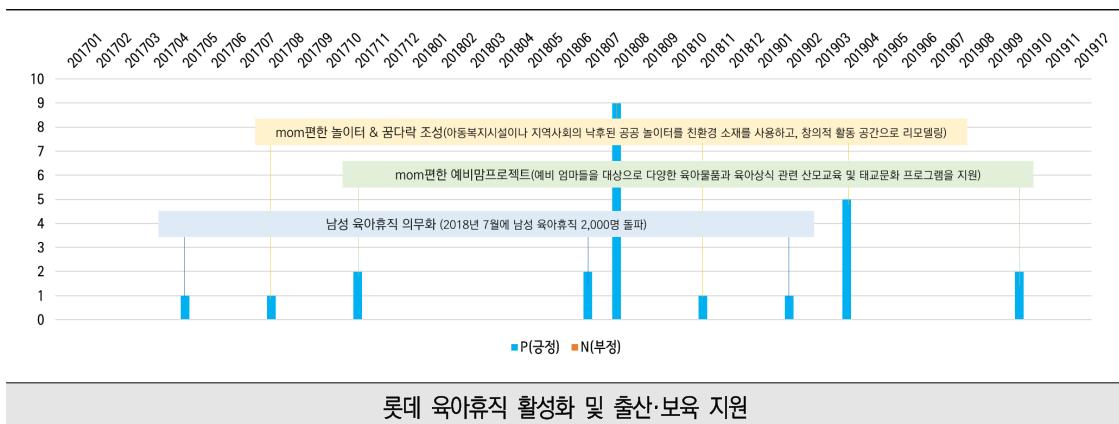
또한, 2017년에는 지역사회에 어린이 놀이터를 기부하고, 직접 이케아 등 국외 우수기업을 초청하여 저출산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이력이 있다. 이어서 2018년에는 광양시와 인구 증가를 위한 인구 활력 증진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2019년에는 중소기업 및 협력사에도 공동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맺었다.



#### □ 저출생 극복 및 영유아 보육 지원(3-8) : 롯데 세부 로그

롯데는 2017년부터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여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이에 2018년 7월 기준, 남성 육아휴직이 2,000명을 돌파했다. 2019년 현재까지 육아휴직을 조직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여성/아동, 육아 관련 사회공헌브랜드 ‘mom 편한’을 운영하며 아동복지 시설 및 지역사회에 낙후된 놀이터를 리모델링하거나 아동 쉼터를 만들고, 예비산모에게 산모 교육 및 태교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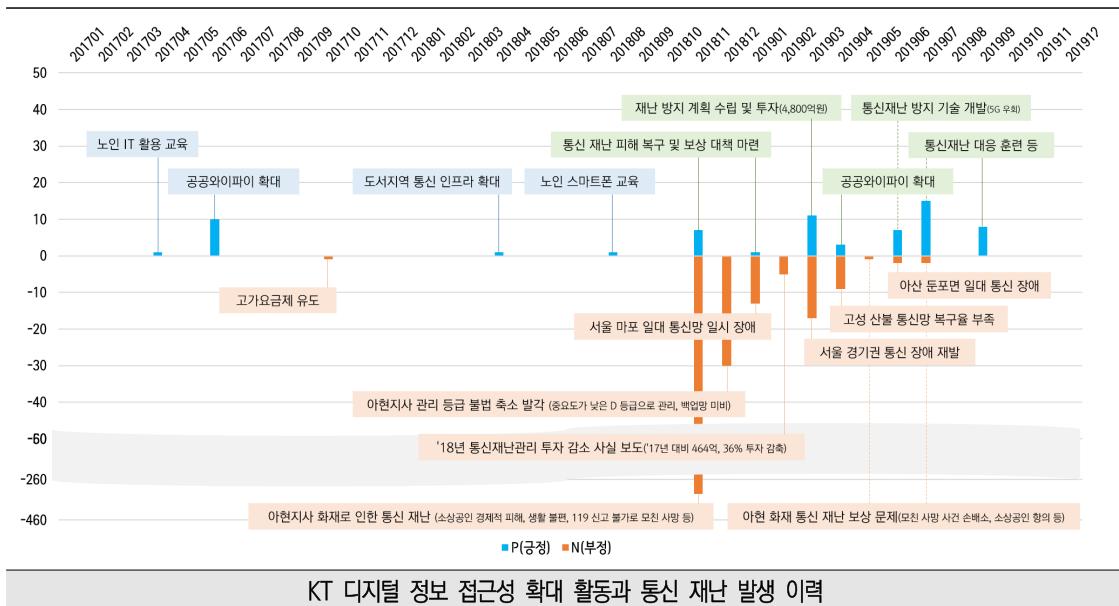


## □ 디지털 정보 접근성 확대 및 통신 안정성 확보(9-1) : KT 세부 로그

KT의 노인에 대한 IT 활용 교육, 스마트폰 교육이 각각 2017년, 2018년 이력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무료로 데이터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확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도서 지역에 통신 기술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 10월, 국회에서 통신사들이 고가 요금제를 유도하고 있다는 질의를 받은 이력도 있다. 그리고 2018년 11월에 발생한 아현화재 통신재난을 시작으로 통신장애 사건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다.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재난 사건 발생 이후, 그 원인을 밝히는 후속 보도들이 이어졌는데, 아현지사는 백업망 구축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D등급으로 축소 관리되고 있었으며, 통신 재난관리에 대한 KT의 투자가 36%가량 감소한 상태에서 발생했다. 통신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119 등 응급신고를 하지 못해 생긴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는 소리도 계속되었다. 2019년 1월에는 서울 마포 일대, 3월에는 서울 경기권, 6월에는 아산 둔포면에서 통신 장애가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다.

다만, KT는 통신재난 발생 시 보상 대책을 여려 차례 발표하고, 온라인 접수창구를 만들었다. 약 4,800억 원을 재난방지에 투자하고, 재난 발생 시 5G로 우회하여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태풍 등이 발생하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통신재난 대응 훈련을 운영하기도 했다.



## V. 정보 공유를 위한 시각화 및 웹페이지 제작

### 1. 시각화

#### 1) 세부 사건 분석 – 뇌물·비리 사건을 중심으로

뇌물, 비리 사건의 경우 단일사건의 진행 과정이 길고 복잡하여 1개월에 1건의 내용으로 단순화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사건 전개의 시각화를 위하여 KT와 롯데의 뇌물·비리 사건 중 하나의 사건을 골라 조사하였다. KT의 경우 전병현 전 정무수석 뇌물수수, 이석채 전 회장의 횡령배임사건, 박근혜 국정농단 관련 비리, 김성태 딸 부정채용으로 대표되는 채용 비리, 비자금 조성을 통한 정치자금 불법 후원, 황창규 회장의 경영 고문 부정위촉 등 6개의 대표적 뇌물·비리 사건이 있었다. 그중 가장 많은 사회적 관

심을 받았던 채용 비리 사건을 채택하였다. 롯데의 경우 박근혜 국정농단 관련 비리, 오너일가 경영비리, 전 병현 전 정무수석 뇌물수수 등 3개의 대표적 뇌물·비리 사건이 있었다. 그중 오너일가 경영비리 사건을 채택하였다. 이는 다른 기업들도 연루된 여타 사건들에 비해 롯데그룹 내부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1) 기사를 통한 사건 로그 확인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사건을 이해함으로써 중요한 사건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여타 매체의 사건정리와 우리 기사 데이터를 비교해보았다. KT 채용 비리 사건의 경우 ‘그 사건 그 검사 DB, 김성태 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KT 채용 비리 사건(참여연대, 2019)’ 항목에서 볼 수 있는 수사 과정과 비교했다. 이때 해당 매체에 기재된 과정 중 60% 이상의 사건을 우리 기사가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기사 게시일 및 제목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며 기사 대부분이 수사 과정에 대해 보도할 때 전후 사정을 기재한다는 사실, 해당 매체는 검찰의 수사 과정을 상세히 서술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기사 데이터를 통해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롯데 경영비리 사건의 경우 ‘2791억 배임 횡령 조세포탈 롯데 오너가 검찰 수사 착수부터 선고까지(뉴시스, 2017)’ 일지와 비교하였다. 이때 해당 일지와 공통되는 연구 대상기간(2017년 1월~2017년 12월) 동안의 사건 중 66% 이상의 사건을 우리 기사가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기사 게시일 및 제목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며 기사 대부분이 수사 과정에 대해 보도할 때 전후 사정을 기재한다는 사실, 누락된 사건은 신영자의 보석신청과 관련된 사항 등 거시적인 전개를 이해함에 있어 아주 중요한 사건을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기사 데이터를 통해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2) 사건 개요 및 표

#### □ KT - 채용 비리

KT 채용 비리 사건은 2018년 12월 한겨례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딸의 KT 특혜채용의혹을 보도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케이티 경영지원실(GSS) 케이티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가 2018년 2월 퇴사했는데,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이 비정상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유력인사 자체 현황을 정리한 VVIP 명단에 대한 증언(김기택 전 KT 인사담당 상무), 김 의원이 직접 딸의 채용을 요청했다는 증언(서유열 전 KT 홈 고객본부 사장)이 있었다. 이에 이석채 전 KT 회장은 11명에 달하는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2019년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재판 결과에 항소하였다.

김 의원에 대하여 검찰은 2012년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김 의원의 딸을 채용해줬다고 판단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2020년 1월 17일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혐의에 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직접 딸의 채용을 요청했다는 서 전 사장의 증언이 근거 없다고 판단하여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 롯데 – 경영비리

롯데 경영비리 사건은 2016년 5월 당시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였던 정운호에 관한 수사 중 네이처리퍼블릭이 면세점 입점을 위해 롯데 측에 뒷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관련 계열사뿐 아니라 롯데 일가 전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영자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 등 롯데 일가 5인 및 전·현직 임원들이 배임, 횡령,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조사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한국 롯데 계열사에서 일한 적 없음에도 509억 원 상당의 급여를 주고, 롯데시네마 매점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홈쇼핑에 774억 원의 손해를 초래하고, 경영실 패를 무마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동원해 롯데피에스넷 주식을 사들여 계열사에 471억 원의 손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았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홀딩스 주식을 신 이사장과 서 씨에게 증여하면서 858억 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및 급여 횡령혐의를 받았다. 신 전 부회장은 391억 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하게 횡령한 혐의, 신 이사장과 서 씨는 조세포탈 및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 임대 혐의를 받았다.

이를 통해 신 총괄회장은 횡령 및 조세포탈혐의가 인정되어 1심 징역 4년, 2심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신 회장은 1심에서 배임 및 횡령혐의가 유죄로 판단되었으나 2심에서 배임 혐의만 인정되어 집행유예처분을 받았다. 당시 신 회장은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하여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구속 중이었는데, 국정농단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석방되었다. 신 이사장은 집행유예, 서 씨와 신 부회장 및 여타 전·현직 임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3심에서 재판부는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0월 신 총괄회장 또한 건강 악화로 형 집행이 정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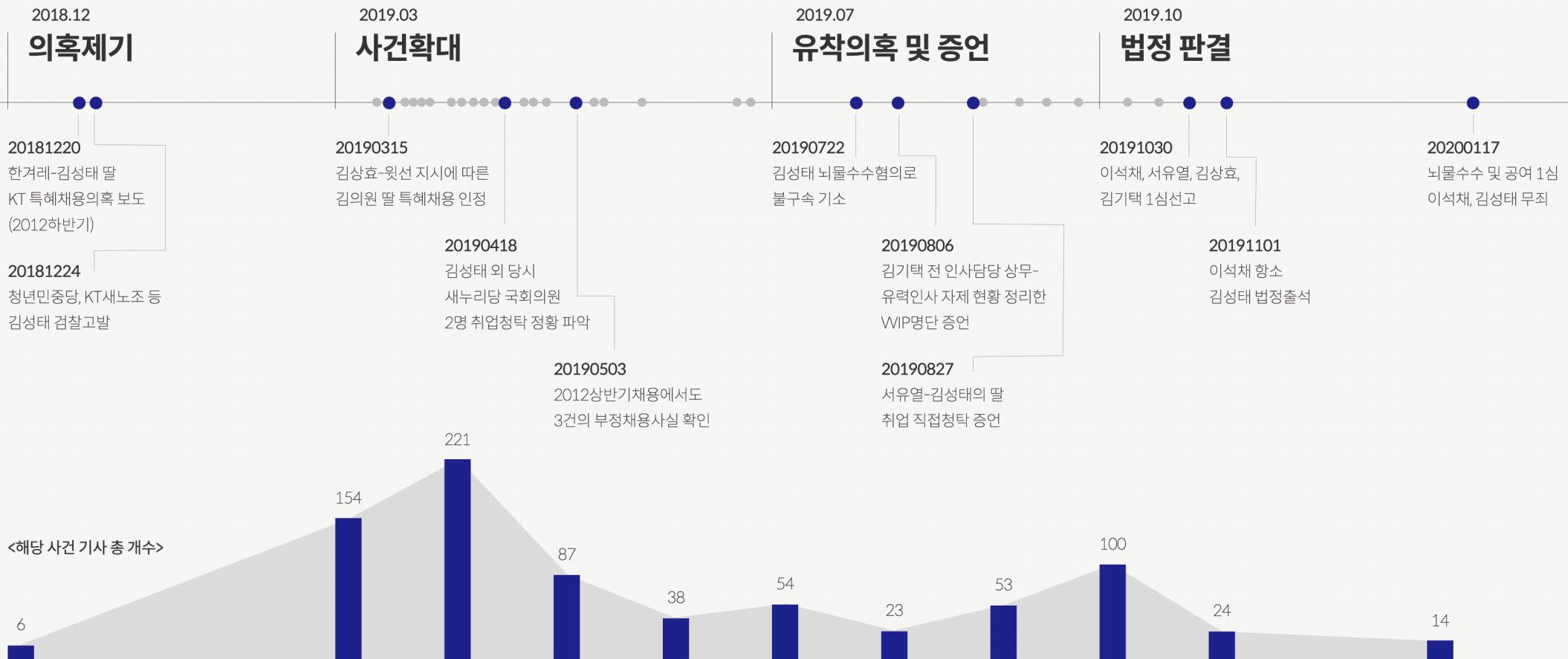
일자	내용	평가/기타	일자	내용	평가/기타
20181220	한겨레-김성태 말 KT 특혜채용의혹 보도 (2019하반기).	KT직원인력부 '무조건 입사시키기' 한 시 발생했다.	20161019	신격호 등 충수할지 전현직 일환 기소.	총24명 2791억원 배임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
20181224	청년민중당 KT새노조 등 김성태 걸침고발.		20170119	신영자 징역 3년 선고.	롯데면세점(네이처리퍼블릭 포함) 입 점비리 1심.
20190314	당시 민족경영실장 KT 전 일원(김상희) 구속.	김성태 말 이외에도 여러 충시자가 협 치에 어긋나게 학격한 정황 발견됨.	20170320	롯데경영비리 1차재판 롯데총수(합)가 5인 제 판결서.	신격호, 신동빈, 신동주, 신영자, 서미경.
20190315	김상희-윗선 지시에 따른 김의원 말 특혜채 용 민정.		20170719	신영자 징역2년 선고.	롯데면세점 입점비리 2심.
20190318	KT 새노조-황교안, 정갑을 아들 KT 채용비리 의혹 제기.	김성태 외 6인의 유력인사가 KT에 자 녀채용을 청탁한 정황.	20171080	김철-신동빈 징역10년, 신충주 징역5년, 신영 자 징역4년, 서미경 징역3년 구형.	
20190322	이석재 전 KT회장 검찰소환조사.		20171111	검찰 신격호 징역10년 구형.	
20190326	검찰-서유율 전 KT사장 구속영장청구.	김성태 말 이력서 전달인물.	20171122	롯데경영비리 1심 선고.	신격호 징역4년 불금35회(법정구속X), 신동빈 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 (제정임대관련 배임, 서씨모녀급여관련 횡령혐의만 유죄), 신동주 무죄 신미경 징역2년 서미경 징역2년 집행유예3년.
20190327	서유율 구속기소.		20171227	신격호 항소.	
20190401	김상희 구속기소.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청탁 등 포함.	20171228	검찰항소.	
20190403	이석재 전 KT회장의 비서실장 사무실 압수수 색.		20171229	신동호 항소.	
20190408	KT민주동지회, KT노동인권센터- 전 노조위원 장 정모씨 고발.	KT민주동지회, KT노동인권센터- 전 노조위원 장 정모씨 고발.	20180321	2심 재판절차 시작- 첫 공판준비기일.	신영자 개인비리사건을 롯데밀가 강행 비리에 병합하여 함께 심리.
20190409	KT본사 등 3곳 압수수색.		20180530	24회 첫 정식재판.	
20190415	서유율 구속기소.		20180718	신동호 세번째 보석 신청.	
20190418	김성태 외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2명 취업 정황 파악.	김회정, 김영선.	20180723	보석신청 기각.	
20190425	이석재 재소환, 15시간 조사.		20180829	검찰-신동빈 경영비리10년+국정농단4년, 총 14년, 불금1000회, 주말금70회, 신격호 징역 10년, 신동주 징역9년, 신영자(개인비리병합) 10년, 불금2200회, 서미경 징역7년 구형.	검찰-경영비리사건과 국정농단사건의 형소송 병합 신청.
20190426	이석재 구속영장 청구.		20181005	2심 선고.	신동빈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4년, 신동호 징역3년 불금 30회, 신영자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서미경 무죄, 신동주 무죄 전현직임을 무죄.
20190430	이석재 구속.		20181012	검찰 항소심 불통 상고.	
20190503	2012상반기채용에서도 3건의 부정채용사실 확인.	조사대상 KT부정채용사례 12건으로 확대.	20191017	2심 판결 확정.	2심의 선고를 유지.
20190509	이석재 구속기소.		20191023	신격호 항집행정지.	건강의학, 사망위험.
20190510	KT제출비리 수사팀당 서울남부지검장(권익회) 장인 재 채용정책·연수 사실 확인.	서울남부지검장의 직무배제.			
20190520	김성태 의원 말 소환조사.				
20190619	이석재, 서유율, 김상호 등 공판준비기일.	이석재-첨의부인, 서유율-김상호-공소사실 인정.			
20190621	정의당-황교안 아들 KT부정채용 의혹제기. 상동.				
20190722	김성태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2년 당시 국회환경노동위원회회 어 당간사, 이석재 당시 KT회장의 국감증			

KT 채용 비리 사건 일지표(일부)	롯데 경영비리 사건 일지표
---------------------	----------------

## (3) 시각화 결과 – KT 채용 비리 예시

# KT공채 스펙초월해 엄빠중심 평가

2018년 12월 한겨레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을 보도했다. 김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케이티 경영지원실(GSS) 케이티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가 2018년 2월 퇴사했는데,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이 비정상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유력인사 자체 현황을 정리한 VIP명단에 대한 증언(김기택), 김 의원이 직접 딸의 채용을 요청했다는 증언(서유열)이 있었다. 이에 **이석채 전 KT회장은 11명에 달하는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2019년 10월 채용비리 1심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재판 결과에 항소하였다**. 그리고 2020년 1월 17일, **재판부는 서유열의 증언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뇌물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2) 한눈에 보는 3개년 기업행동

### (1) 3개년 종합 분석 방법

3개년 기업행동의 시각화를 위해 연도별로 긍정 사건 수, 부정 사건 수, 긍정 사건에서 부정 사건을 뺀 수를 계산했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 사건에서 부정 사건을 뺀 수를 “평가 점수”로 정했다. 즉, 우리는 K-SDGs 유형별 행동 이행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서비스업과 비교하면 온실가스 발생량이 높은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기업을 평가한다면 제조업 기반의 기업은 환경 부문에서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면 제조업 기반 기업이더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강구한 행동 이력이 있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긍정행동에서 부정행동 사건 수를 빼는 방법은 영향의 크기와 상관없이 긍정과 부정을 1대1로 치환하는 방식이므로 항후에 보다 더 발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행동을 나타내는 연도별 사건 수를 엑셀 기반으로 분석한 후 시각화에 사용했다.

2017						2017						2017					
P	gs	hh	kt	lt	psc	N	gs	hh	kt	lt	psc	P-N	gs	hh	kt	lt	psc
1	4	2	3	1	1	1	0	0	0	0	0	1	2	2	3	1	1
2	0	2	1	0	1	2	0	0	0	0	0	2	0	2	1	0	1
3	6	0	12	3	5	3	0	1	0	3	0	3	6	-1	12	0	5
4	1	13	10	8	6	4	0	0	0	0	0	4	1	13	10	8	6
5	0	1	4	6	1	5	0	0	0	0	1	5	0	1	4	6	0
6	0	3	6	1	1	6	0	1	0	0	0	6	0	2	0	0	0
7	3	6	7	7	13	7	0	1	2	1	3	7	0	3	5	6	10
8	4	5	12	4	7	9	0	0	1	1	0	9	4	5	11	3	7
9	0	4	4	2	1	10	0	0	0	2	0	10	0	4	4	0	1
11	3	1	2	2	2	11	0	0	0	0	0	11	3	1	2	2	2
12	0	0	5	0	3	12	0	0	0	0	0	12	0	0	5	0	3
13	0	1	1	0	1	13	0	1	0	0	0	13	0	-1	1	0	1
15	0	0	0	0	1	15	0	0	0	0	0	15	0	1	0	0	1
16	0	2	1	2	0	16	6	7	5	13	6	16	-6	-5	-4	-11	-6
17	0	0	10	4	7	17	0	0	0	0	0	17	0	0	10	4	7

연도별 사건 수 분석 예시(2017년)

#### ✓ 디자이너의 말

엑셀 분석 결과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흥미로웠지만, 설명을 듣지 않으면 해석이 어려웠다. 열과 행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읽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보는 사람이 시간을 오래 들여 해석하지 않더라도 스토리가 전달되고, 유용한 정보가 눈에 띄는 정보 구조를 만들고 싶었다. 또한 긍정 사건 개수에서 부정사건을 뺀 것은 값 자체는 유의미했지만, 대중이 공감하고 흥미를 느낄만한 ‘직관적인 이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를 ‘평가 점수’라고 규정하고 시각화에서 중점적으로 드러날 방안을 탐색했다. 아래는 중요하게 고려했던 사항들이다.

- 연도별 변화가 한눈에 들어올 것
- 한가지 목표에 대해 기업끼리 행동 비교가 가능하게 할 것
- 긍정, 부정사건을 함께 두어서 기업의 전체 행동이 보이게 할 것
- 평가 점수의 변화, 즉 목표별 기업의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지 부정적으로 변화하는지 드러내게 할 것

특히 4번에서는, 긍정 사건에서 부정사건을 뺀 값이 -(マイナス) 값일 경우 빨간색 면적으로, +(플러스) 값일 경우 초록색 면적으로 그림에 나타냄으로써 점수 변화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했다.

시각화를 끝내고 나니 연도별로 변화하는 기업의 행동, 기업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목표(해양생태계 보전 등) 등 등이 한눈에 보여 흥미로웠다. 아직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은 결과이지만, 개인적으로 새로운 시도였기에 재밌고 부듯한 시간이었다.

## (2) 시각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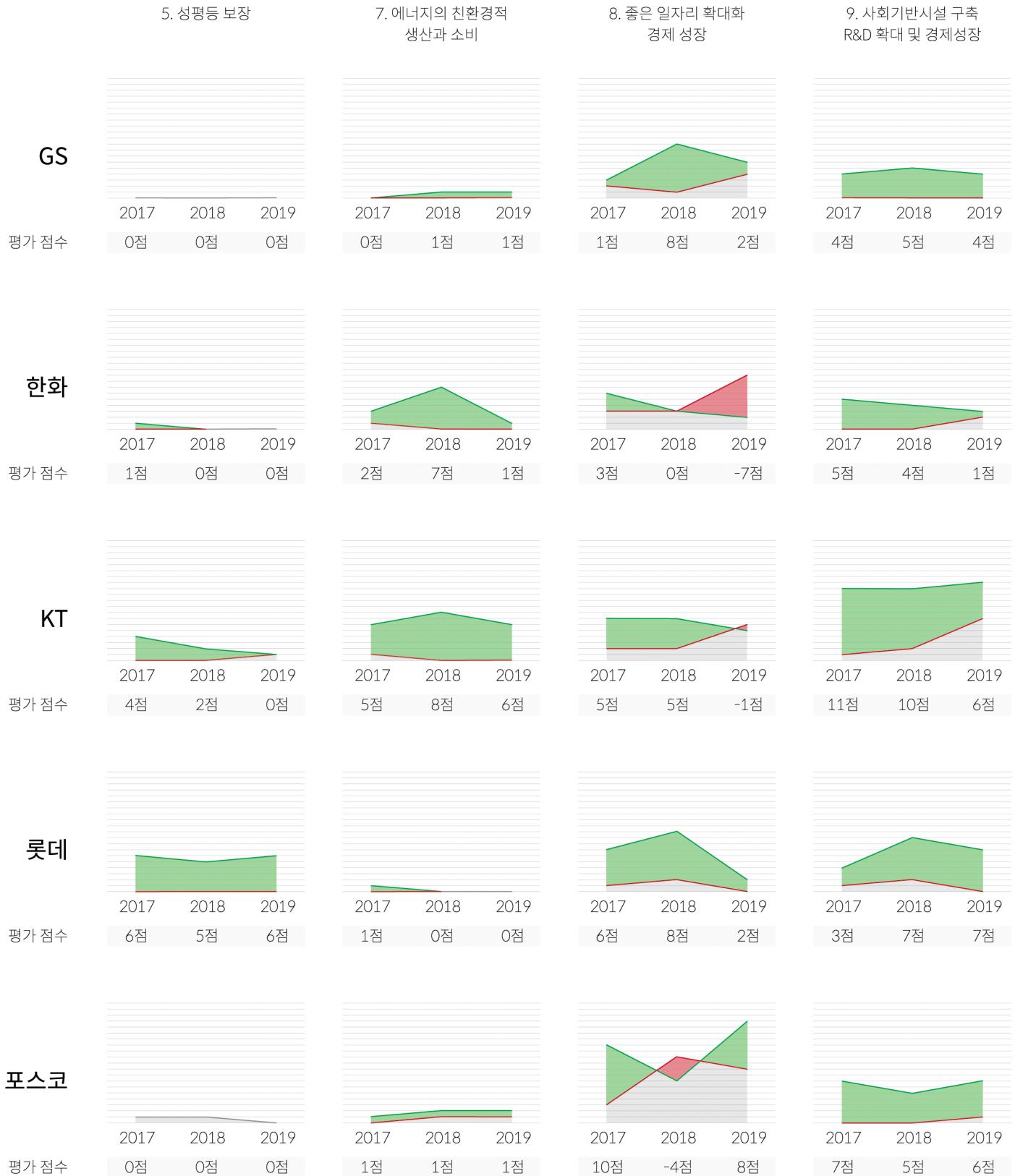
# 한눈에 보는 3개년 기업 행동

긍정 사건 개수  
 부정 사건 개수  
 \*평가 점수 계산식 = (긍정 사건 개수) - (부정 사건 개수)



# 한눈에 보는 3개년 기업 행동

긍정 사건 개수  
 부정 사건 개수  
 \*평가 점수 계산식 = (긍정 사건 개수) - (부정 사건 개수)



# 한눈에 보는 3개년 기업 행동

긍정 사건 개수  
 부정 사건 개수  
 \*평가 점수 계산식 = (긍정 사건 개수) - (부정 사건 개수)

10. 불평등 해소

11. 포용적이며 안전하며 회복력있는 도시와 주거지 조성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증진

14. 해양생태계 보전

**GS****한화****KT****롯데****포스코**

# 한눈에 보는 3개년 기업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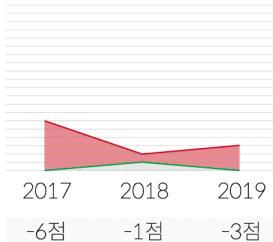
긍정 사건 개수  
 부정 사건 개수  
 \*평가 점수 계산식 = (긍정 사건 개수) - (부정 사건 개수)

15. 육상생태계 보전

16. 인권·정의·평화

17. 지구촌 협력 강화

**GS**



**한화**



**KT**



**롯데**



**포스코**



## 2. 웹 페이지 제작

만점팀의 시민연구 결과를 웹페이지의 형태로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 제작 시 웹 프레임워크는 Django 2.2, 서버 인프라는 Google Cloud Platform을 이용했다.

- ✓ 웹 제작 절차
    - 1) Django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 2) 프로젝트 소개 및 경과를 퍼블리싱합니다.
    - 3) 뉴스 수집한 MySQL database를 Django 모델과 매칭시켜서 import 합니다.
    - 4) 뉴스 검색, 가치평가 등의 기능을 개발합니다.
    - 5) Google Cloud Platform(GCP)의 App Engine을 활용해 서버를 세팅합니다.
    - 6) Django 프로젝트를 GCP에 업로드합니다.
  - ✓ 홈페이지 주소 : <http://manjum.kr/>

주요한 개발 내용은 뉴스 검색기, 뉴스 분석기 2가지다. 뉴스 검색기에서는 우리가 수집한 언론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 기업명으로 필요한 기업정보를 검색해볼 수 있다. 뉴스 분석기에서는 새로운 기사의 본문을 입력하면 머신러닝 기술로 판정된 K-SDGs 유형과 궁부정 유형을 알려준다.

- ✓ 뉴스 검색기
  - 1) 키워드 검색 : 만점에서 수집한 뉴스를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2) 가치 검색 : 만점에서 평가한 뉴스를 17가지 유형의 가치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3) 검색결과 : 검색결과가 표시되고 뉴스를 클릭하면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뉴스 검색기는 초기 수집된 기사 DB로 개발되어, 현재 최종 분석 DB로 수정 중입니다.

- ▶ 뉴스 분석기  
1) 뉴스 본문을 인터넷 신문 기사에서 복사합니다.  
2) 기사 분석기에 붙여넣기하고 분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분석 시간이 30초가량 소요됩니다)  
3) 만점이 연구한 데이터 기반으로 가치평가, 긍정/부정 평가 결과가 표시됩니다.  
\* 이미지, 특정 문자 등에 의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석 요청이 많으면 분석기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eyword:	
GS	
value:	
선판인함	
SEARCH	
(현재는 100개의 기사만 보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기획] 100가지 GS가족 이야기, 놀라운 GS 혁신사례 GS전대준교업은 청구직 되려 줄의</a></li> <li>• <a href="#">[SK그룹] 대내외적십자사·현령로·건강치료·관리하는 '레드카본트' 출시</a></li> <li>• <a href="#">[한국3성] 여야트 브랜드와 함께 GS건설 '주거문화를 담았다'</a></li> <li>• <a href="#">[속도] 전세차 샵데코·기아 전자차 GS 중장선에서 자동 길재</a></li> <li>• <a href="#">[현대ENG] GS 멤버십 '제로우수'·'제로우수' 기여 선정</a></li> <li>• <a href="#">[현대ENG] UN 지속가능발전목표 GS 멤버십 '제로우수'</a></li> <li>• <a href="#">[현대ENG]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제로우수' 최우수 기여 선정</a></li> <li>• <a href="#">[현대ENG]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제로우수' 1위 그룹 선정</a></li> <li>• <a href="#">[현대ENG]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제로우수'</a></li> <li>• <a href="#">[GS건설] 신설 설립인 KB국민은행, '한남지사'의 '데브레이티지' 대학(民校) 1등 주거단지로'</a></li> </ul>	
뉴스 검색기	
	뉴스 분석기

## VI. 다양한 이해당사자 의견 듣기

연구 초기 연구 방향과 대상을 설정하면서 우리 연구가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즉, 가치지향적 소비와 기업의 사회적 행동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또한 이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궁금했다. 우리는 관련된 행위자를 다섯 그룹으로 나누어 가치지향적 소비와 기업, 언론 보도의 영향력, 연구 방법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질문했다.

첫째로 시민들이 가치지향적 소비와 기업, 언론에 대해 갖는 인식이 궁금했다. 시민들이 실제로 가치지향적 소비를 하는지, 우리의 연구대상이 될 언론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업평가의 기준이 될 K-SDGs에 대해 알고 있는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연구 방향 및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시민단체는 기업 활동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조직력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자이다. 때로는 기업과 대립하면서 언론의 역할이나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가질 것 같아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셋째. 실제로 언론 보도를 작성하는 기자들의 의견 또한 궁금했다. 공개된 자료인 언론 보도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만큼, 직접 취재 또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에게 연구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조언을 듣고 싶었다. 정보전달 매체로서의 언론이 가지는 장단점이나 기업 관련 기사 작성방법, 제목을 통한 기사 내용 추측의 타당성 등이 궁금했다.

넷째, 물론 기업의 입장도 중요했다. 우리 연구의 목적은 무조건 기업의 행동을 비판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많은 기업이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에도 해명 또는 추후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도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사회적 활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기업의 긍정적 노력과 부정적 사건에 대한 보도가 공정하다고 느껴지는지 등에 관해 물어보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공적 영역의 행위자인 정부의 입장도 궁금했다. 정부는 시민, 기업 등 민간 영역에 대해 한계를 규정하고 행위를 제한하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법을 제정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따라서 가치지향적 소비를 통한 시민의 노력, 사회적 행위를 통한 기업의 지향 등이 어떤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입법부 차원의 인식 또한 궁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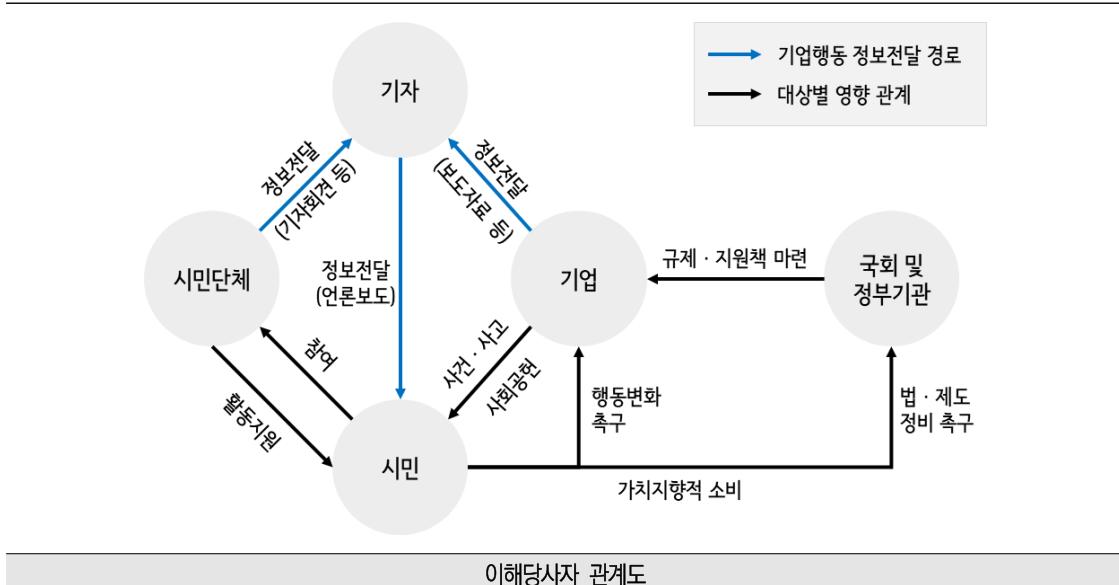
이러한 궁금증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 기자, 기업의 경우 설문 조사를, 시민단체의 경우 인터뷰를, 정부의 경우 국회 근무 비서관의 주제문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연구와 병행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 내용에 모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또한, 기자와 기업의 경우 접촉을 시도했지만 직접적으로 의견을 받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다양한 행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이상의 행위자들 간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즉 가치지향적 소비와 기업의 사회적 행위에 대해 다양한 행위자들이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해당사자의 현실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실정에 맞는 연구방법을 정립해갈 수 있었다.

여기 6장에서 의견 수렴과정이 본 연구에 시사한 바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대상별 질문과 응답 등 세부적인 내용은 [부록 1]에 담아두었다.

이해당사자 관계도는 기업에 대한 정보가 시민에게 전달되는 과정과 이해당사자 각각의 역할을 나타낸다. 먼저 정보전달 경로를 살펴보면, 기자는 시민단체가 주최한 기자회견, 기업이 발행하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이를 기사로 작성하여 시민에게 전달한다. 시민들 또한 기업의 사건·사고와 사회공헌 활동 등을 자신들에게 전달해주는 주요 매체가 언론 보도라고 말했다.

각각의 역할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업의 행동은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시민은 기자의 언론 보도를 통해 그 사실을 인지한다. 시민단체와 기업은 각각의 입장을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기업의 행동을 인지한 시민은 가치지향적 소비를 통해 기업에 해명을 요구하거나 대책 마련을 촉구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국회 및 정부 기관의 법·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각각의 이해당사자가 우리에게 제시한 의견이 본 연구에 시사한 바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10〉 이해당사자 의견 듣기 종합

구 분	내 용
시민 설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들은 기업의 행동에 따라 잘잘못을 평가하여 불매, 혹은 구매를 진행한 경험이 있었다.</li> <li>기업의 행동 정보는 주로 '신문, 인터넷 뉴스'에서 주로 접한다고 답변했다.</li> <li>그러나 언론 보도만으로는 사건의 전개를 파악하거나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는 '기치지향적 소비'를 위한 언론 자료의 활용성 증진을 연구 방향으로 설정했다.</li> <li>또한, 언론 보도가 기업의 홍보자료와 같이 느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민단체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재검토했다.</li> <li>그리고 시민은 분석이 필요한 기업행동으로 '갑질', '직원복지', '성차별', '환경오염' 등을 꼽았다. 이는 K-SDGs 관심 유형과도 유사했으며, K-SDGs에서 포괄할 수 있는 항목이었다.</li> </ul>
시민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불매운동 추진 경험을 들었다. 기업의 대응과 언론사의 정보전달 방식 등 시민단체에</li> </ul>

구 분	내 용
인터뷰	<p>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단체에서 피해사실을 공론화하기 위해 활용하는 매체 또한 언론 보도였다. 우려와 달리 기업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더라도 대부분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을 보도 할 때 언론사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조를 취한다거나, 사회공헌 등 긍정 사건을 다수 중복 보도하여 이슈를 덮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본 연구 진행 시에는 사건을 다루는 서술 방식보다는 실제 사건의 발생 여부 등 사실 위주의 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중복 보도의 영향을 줄이고자 단시간 내 유사한 내용을 보도한 기사는 정제하여 평가에서 배제하였다.</li> <li>불매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기해 기업이 추가되거나, 보상범위가 확대되는 등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다고도 했다. 따라서 사건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생성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업평가 방법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었다.</li> <li>또한, 시민이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활동이 지속하여야 기업과 소통 경로가 열린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업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여 시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li> </ul>
기자 설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론 보도를 작성하는 기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을 시행했으나, 답변을 얻지 못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7명 중 135명의 메일 발송, 51명의 기자가 메일을 열어보았지만, 답변을 얻지 못함</li> </ul> </li> <li>설문 항목은 아래와 같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관련 기사 작성 시 어떤 방식으로 취재를 하시나요? (사건·사고, 보도자료 등)</li> <li>- 기업의 부정적인 행동 또는 기업이 숨기고자 하는 사실을 취재할 때의 어려움은 무엇인가요?</li> <li>- 기사 제목을 중심으로 기사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li> <li>- 정보 전달 매체로서 언론이 가지는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li> <li>- 기타 조언하고 싶은 점, 연구 개선 방안</li> </ul> </li> </ul>
기업 설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접 설문 조사를 시도하고자 하였으나 기업 담당자의 연락처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자료조사로 대체하였다. UN 국제 콤팩트 한국협회의 '2019 코스피 100대 기업 SDGs 이행 현황 설문 조사 분석'에서는 기업의 SDGs 이행 필요성 및 이행 시 이점, SDGs 업무추진 시 애로사항, 중요성 등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li> <li>기업이 SDGs 달성을 위한 핵심주체라고 생각하는 질문에 89.5%가 긍정 답변을 했으며 SDGs 이행이 기업 경영에 비재무적, 재무적 요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밝혔다. 기업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고객과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자 하나, 대중의 낮은 인식이 SDGs 업무추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는 점이 흥미로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DGs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기업의 활동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각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li> </ul>
국회 주제문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범한 개인들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근래의 방식이 정치권의 대응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여론에 따라 법·제도적 장치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법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에 가치지향적 소비가 문제해결과 재발 방지를 늘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사건에 대한 여론이 단기간에 형성되고 잊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건, 대응, 변화에 이르는 정보를 축적하고 시민들과 공유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li> </ul>

## VII. 연구를 마치며

기업의 쏟아지는 사건·사고와 이슈들을 보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지 생각했다. 기업이 서비스나 제품의 질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기업을, 특히 연구대상이었던 기업집단을 하나의 행위자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기업은 많은 사건·사고들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다양한 사회적 활동들을 진행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하나의 기업을 좋거나 나쁘다고 평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우리 연구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지기도 한다. 기업을 어느 한 가지 성격으로 평가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기준들을 통해서 어떤 영역에서 어떤 활동과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세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7개 영역을 포괄하는 K-SDGs는 그런 의미에서 적절한 도구였다. 결과적으로 특정 기업이 어떤 영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영역에서 모범적인지를 분석할 수 있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다. 시간상의 한계로 모든 기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활동을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고, 많은 사건 중 어떤 사건을 채택하여 시각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었다. 기업행동을 평가할 구체적 지표 또한 설정되어있지 않았다. 연구를 통해 느낀 문제점들은 앞으로 활동을 지속해나가며 보완해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기업 활동에 관한 SDGs 지표가 국가 차원에서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ISO26000 등 다른 기준들을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를 발판 삼아 앞으로 더 정제되고 유용한 정보들을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행동을 분석하자는 공동의 목표 아래, 각자의 궁금증을 가지고 함께 연구를 진행한 만점팀의 연구 후기를 공유해본다.

### 만점팀의 시민연구 후기

#### ✓ 시민 조효진

불매운동 왜 해? 그 기업은 왜 좋아?라는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하고 싶었다. 그런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서,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정보는 모으되, 맥락을 잊지 않도록, 기업의 행동을 분석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희망제작소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시민연구를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기업별로 보도된 기사를 모으는 일이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엑셀 시트를 보면 이런 생각을 했다. ‘갈피를 못 잡는 게 당연했구나!’. 기업의 환경오염, 산업재해, 뇌물비리 사건들은 물론이고, 청년 고용, 기부 활동, 국제협력 등의 활동을 담은 기사들이 시끄럽게 섞여 있었다. 그러니 두 번째로는 든 생각은 ‘이걸 분석한다고 기업의 좋고 나쁨을 명쾌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결론적으로, 연구를 마무리한 지금도, 좋은 기업을 딱 하나 꼽아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환경 분야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연속된 사건 속에서도 개선을 하지 않았는지를 안다. K-SDGs 세부 목표로 관심사를 특정해서 몇 년간의 기업행동을 살펴보면, 기업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는지, 개선하고 새로운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는지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기업행동 세부로그’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나는 제일 재미있었다.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나는 왜 가치지향적 소비를 생각했을까?’라는 질문을 되뇌었다. 기업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진다는 것을 느꼈고, 시민으로서 기업에 줄 수 있는 상과 벌이 ‘소비행위’라고 어렴풋이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 생각은 거의 확신이 되었다. 기업은 소비자와의 신뢰를 쌓기 위해 사회적 기여를 실천하고 있었고, 시민과 시민단체도 소비행위를 의사 표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지금은 이것이 아주 작은 흐름, 우리의 연구가 그 속의 아주 작은 시도일지라도, 이 흐름은 지속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 믿는다.

#### ✓ 시민 정혜정

‘소비’는 사람들의 거의 매일 하는 일상적인 행위이지만, 주체적으로 사회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관심사

나 가치관에 따라 특정 기업이나 물건을 구매 또는 불매하는 행동은 다수의 뜻이 모인다면 큰 힘이 될 수 있다. 나 개인적으로 불매를 하는 기업이 있다. 하지만 이슈 직후와 달리, 지속적으로 사건의 경과를 관찰하며 기업의 대응을 지켜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을 단순히 관심이 식어서라고 차부하기엔 언론에 비치는 절대적인 기사의 양 또한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연구를 진행하며 사건의 종합적인 정리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잡게 되었다.

우리의 연구 수단은 ‘빅카인즈’라는 언론 빅데이터였다.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고 정제해 시각화하는 것은 단순한 덩어리에 스토리를 만들며 쉽게 여러 사람과 공유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나는 수집하고 분류한 언론 빅데이터를 시각화해 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풀어내는 역할을 맡았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째는 한 사건의 자세한 로그를 만드는 것, 둘째는 5개 기업의 3년간의 행동을 비교하는 그래프를 만드는 것이었다. 로그를 통해 흘러져있는 정보를 모아 흐름을 보여줌으로써 사건의 발단, 기업의 대응, 그리고 결과까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정리했다. (이는 앞으로 더욱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5개 기업 비교 그래프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변화하는 기업의 행동과 기업별 주력하는 목표 등이 한눈에 보여 만들면서도 매우 흥미로웠다.

아직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은 결과이지만, 개인적으로 새로운 시도였기에 재미있고 뿌듯한 시간이었다. 우리의 연구가 꾸준히 쌓여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고 만점 기업과 만점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 시민 이성화

프로불매운동으로서 무언가를 구매할 때 어떤 회사의 제품인지, 친환경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지, 탄소 발자국이 얼마나 긴지, 노동자들에게 건강한 노동환경을 제공하는지 등을 확인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이런 정보들을 주로 신문 기사로 접한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제안을 들었을 때 정말 재미있으리라 생각했다.

나의 연구 목표는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기사 내용을 분류하는 것이다. 욕심을 내서 시민들이 직접 기사를 분석할 수 있는 웹서비스도 만들어 보았다. 기업 행위의 세부가치 분류작업, 그 세부가치에 따른 뉴스 가치 분류에도 조금 참여했다. 기술적으로는 뉴스 본문 크롤링, 머신러닝을 활용한 뉴스 본문 데이터 학습, 홈페이지 구축 및 뉴스 데이터 가치 분석 기능 개발했다. 끝나고 돌아보니 미디어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까지 가지 못했다. 많은 뉴스를 어떻게 컴퓨터로 읽고 분석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했다. 시각화 자료로 제시된 개별 기업분석 및 가치 분류에 많이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는다.

팀원들과의 수다와 시민 인터뷰, 단체 인터뷰를 통해 기업에 대한 정보가 그 정보의 가치와 비례해서 확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SNS로 리트윗 몇 번에 전 세계로 정보가 퍼지는 세상이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정보들을 접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최근에는 가짜뉴스를 교묘하게 만들어내는 유튜버나 블로그 등이 많아서 진위를 판별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들이 실제로 소비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통로를 어떻게 디자인하는지 알 수 있었다. 기술을 통해서 불매운동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얻은 자신감이다. 이런 실험을 지지해 주고 함께 연구한 동료들도 정말 고맙다. 시민연구를 하면서 기술적인 상상력과 내적인 에너지를 얻었다. 앞으로 다른 시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다.

### ✓ 시민 주영진

두 가지 일을 맡았다. 기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는 것, KT 및 롯데의 놈물 비리 사건 경과를 조사하는 것이다 (사회과학대를 나왔기 때문이었다). 설문 조사의 경우 뉴스레터 사이트를 통해 보기 설문 양식을 만들고, 관련 기사를 작성한 기자분들의 메일 주소를 수집해 연락을 취하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답변을 전혀 받지 못했다. 기자들은 우리 연구에 관심을 가지거나 참여할 동기가 없기 때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며 개별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받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건 경과 조사는 (1)여러 비리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며 후속 기사가 섞이는 문제 (2)사건이 조사 및 재판단계로 들어서며 등장한 복잡한 법률용어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시민들이 사건을 이해하는 것 또한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만든다는 우리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기업에도 권선징악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연구 초기의 궁금증에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다. 일본 불매 등에서 보았듯 소비와 가치를 연결하는 행위가 나타나며 기업 또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와 호감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좀 더 나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까지 반영한 대답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하고 악한 행동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포착하고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팀원들간 논의의 대부분은 위 질문에 대답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발전의 여지는 있다. 시작이 반이라는데, 우리는 이미 첫 연구를 끝마치기까지 했다!

### ✓ 시민 박민정

불매운동을 하고 있던 일본기업이 사실은 고용 창출 우수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매로 이 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에 파급효과를 주게 된다면, 이는 옳은 건가? 고민스러워졌다. 또한 단순히 한국을 깎아내린 일본기업이란 이유로 불매를 시작했단 사실이 부끄러워졌다. 불매하는 정당한 이유를 스스로 찾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만점 프로젝트에서 2가지 활동에 참여했다. 먼저 기업에 관한 설문 조사를 기획했다. 언론에 대한 기업의 생각을 듣기 위한 수단으로 설문 조사를 택했다. 하지만 일반인으로서 어떻게 기업에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난관에 봉착했다. 이메일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홈페이지 어느 곳에도 이를 공개한 기업은 없었다. 또한, 구축된 데이터나 인맥도 없어 시민연구가로서 한계를 느낀 부분이었다.

두 번째로 포스코 수주 비리에 대한 로그를 정리했다. 프로그래밍으로 선별한 기사를 바탕으로 로그를 정리하려니, 기사마다 인물을 정리하는 방법이 달라 애를 먹었다. 어떤 기사에서는 A라고 표현한 인물은 다른 기사에서는 B로 지칭되는 등, 기사 본문은 일일이 파악해야 정리할 수 있었다. 또한, 기사마다 사건을 다루는 깊이가 달랐다. 단순히 얼마의 비리를 저질렀다고 표현된 기사가 있지만, 자동차, 금품 등 구체적인 내역을 표기한 기사도 있었다. 서로 다른 기사를 하나로 정리하려니 그 기준을 잡기 어려웠다. 또한, 언론만으로 로그를 정리하기엔 신뢰도가 부족하단 생각이 들었다. 같은 사건도 조금씩 다르게 설명된 것이 있어 언론기사가 100% 사실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

프로젝트에서 윤리적인 소비를 위해 SDGs의 기준을 기업 활동에 적용해보았다. 출곧 SDGs에 대해 관심을 가져온 사람으로서 매우 반기운 일이었다. 3~4년 전만 해도 개발 협력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던, 설명하려면 한참이 걸리던 개념이지만 어느새 시민사회까지 내려왔음을 느꼈다. 기업은 본연의 기업 활동뿐만 아니라, 고객, 지역사회 등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상생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이다. 만점 프로젝트는 아직 미흡하고 더욱 고민해야 할 점이 많지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관점에서 기업과 시민에게 모두 경종을 울리는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부록] 다양한 이해당사자 의견 듣기 세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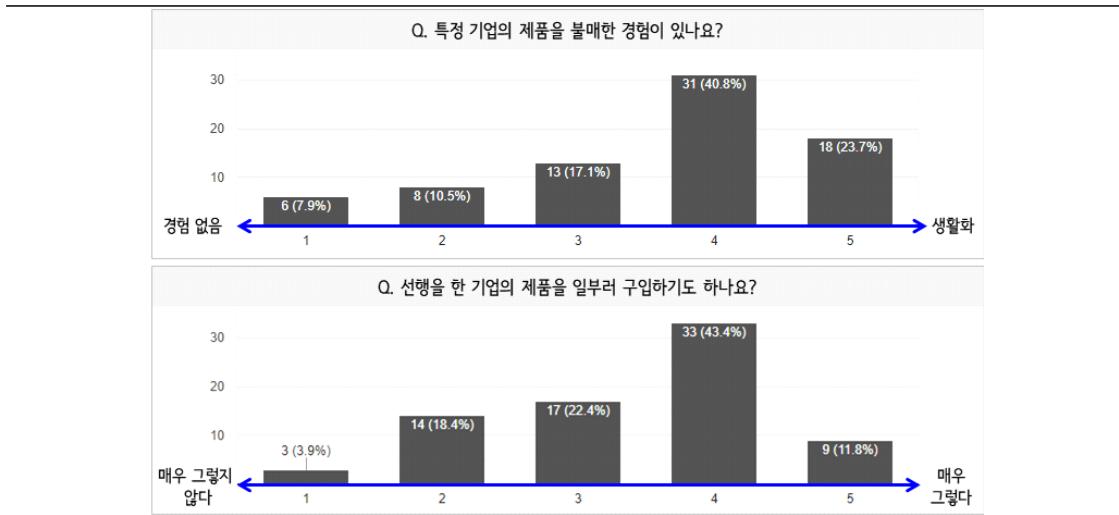
### 1. 시민 설문 조사

#### □ 기본 정보

19년 11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설문을 진행했으며, 전체 응답자 76명 중 여성이 71.1%(54명), 남성이 27.6%(21명), 기타 응답이 1.4%(1명)으로 집계되었다. 연령 분포는 20대가 80.3%(61명), 30대가 14.5%(11명), 40대가 1.3%(1명), 50대가 3.9%(3명)이다. 즉, 응답자의 과반수가 20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 □ Q1. 가치지향적 소비 경험

특정 기업의 제품을 불매해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불매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는 7.9%(6명)에 불과했다. 그에 비해 불매를 생활화하고 있다는 답변은 23.7%(18명)에 달했다. 선행을 한 기업의 제품을 일부러 사기도 하냐는 질문에는, 55.2%(42명)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답변했고, 그중에서도 11.8%(9명)는 “매우 그렇다”고 답변했다. 두 가지 질문을 통해 다수의 응답자가 가치지향적 소비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 Q2. 불매 또는 구매 시 이유

불매의 이유와 불매 기업을 물었을 때, 불매의 이유에 대한 답변은 5가지로 구분되었으며, 불매 기업은 총 18곳의 업체가 거론되었다. 국가 간 갈등에 의한 유니클로 불매가 43.4%(33명)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고, 성차별 및 갑질에 의한 남양 불매가 32.9%(25명)로 그 뒤를 이었다.

##### \* 그 외 항목

- 국가 간 갈등에 의한 일제 불매 : 롯데(5.3%, 4명), 무인양품(3.9%, 3명), 펜텔·아사히(2.6%, 2명), ABC마트·DHC·다이소·키스미(1.3%, 1명)
-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인한 불매 : 옥시·애경(1.3%, 1명)
- 성적 대상화, 성차별, 성범죄로 인한 불매 : 미미박스·하나은행·한샘·호식이·베스킨라빈스(1.3%, 1명)
- 가격 등 서비스로 인한 불매 : 애플(1.3%, 1명)

구매의 이유와 구매 기업을 물었을 때, 지역발전 및 사회공헌 활동을 이유로 LG, 러쉬, 마리몬드, 매일유업, 비커넥트, 오뚜기, 자주, 탑텐, 파타고니아 9개 기업과 한살림, 희망승일재단 등의 협동조합 및 재단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구매 기업에 대한 응답률은 30.3%(16건)으로 저조한 편이었으므로 항목별 응답률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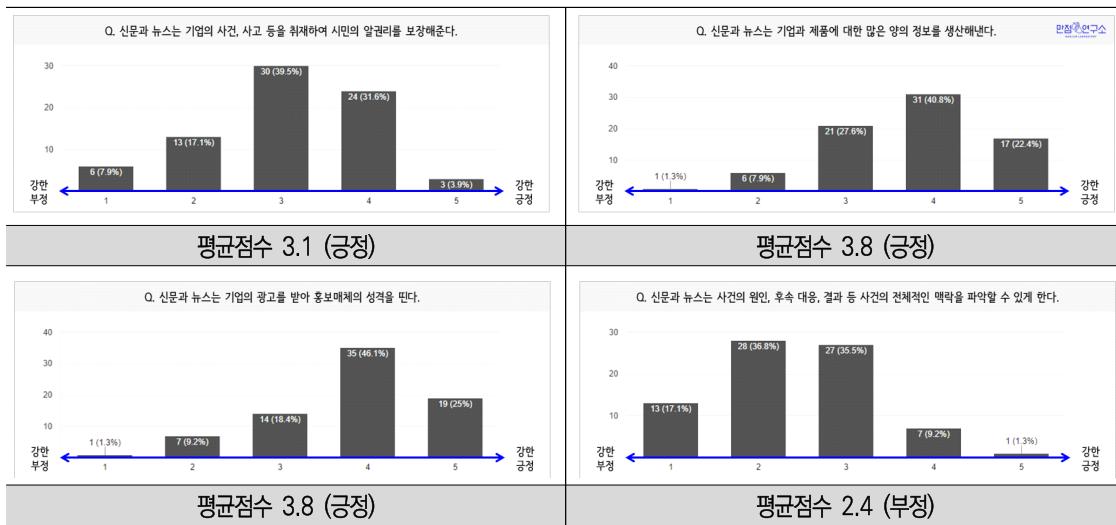
#### □ Q3. 기업의 사회공헌, 갑질 등 행동 정보 수집 매체

기업행동에 대한 정보를 신문 및 인터넷 뉴스에서 주로 접한다는 답변이 52.6%(40명)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가 28.9%(22명), TV 방송이 7.9%(6명), 주변인의 이야기가 6.6%(5명)를 차지했다. 그 외에 인터넷 커뮤니티, 기업 홍보물 등 기타 매체를 통해 접한다는 의견이 3.9%(3명) 였다.

#### □ Q4. 언론 보도자료에 대한 인식

언론 보도자료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5점 척도로 질문에 동의하는 정도를 물었다. 평균 3점을 기준으로 3점 이상일 경우 긍정하는 것으로, 3점 이하일 경우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신문과 뉴스에서 접하는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 신문과 뉴스는 기업의 사건, 사고 등을 취재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준다. 둘, 그렇기에 기업과 제품에 대한 많은 양의 정보를 생산해내는 매체라고 생각한다. 셋,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기사 내용을 수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신문과 뉴스는 기업의 광고를 받아 홍보 매체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넷, 그리고 뉴스와 신문으로는 사건의 원인, 후속대응, 결과 등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다.



#### □ Q5. K-SDGs 유형별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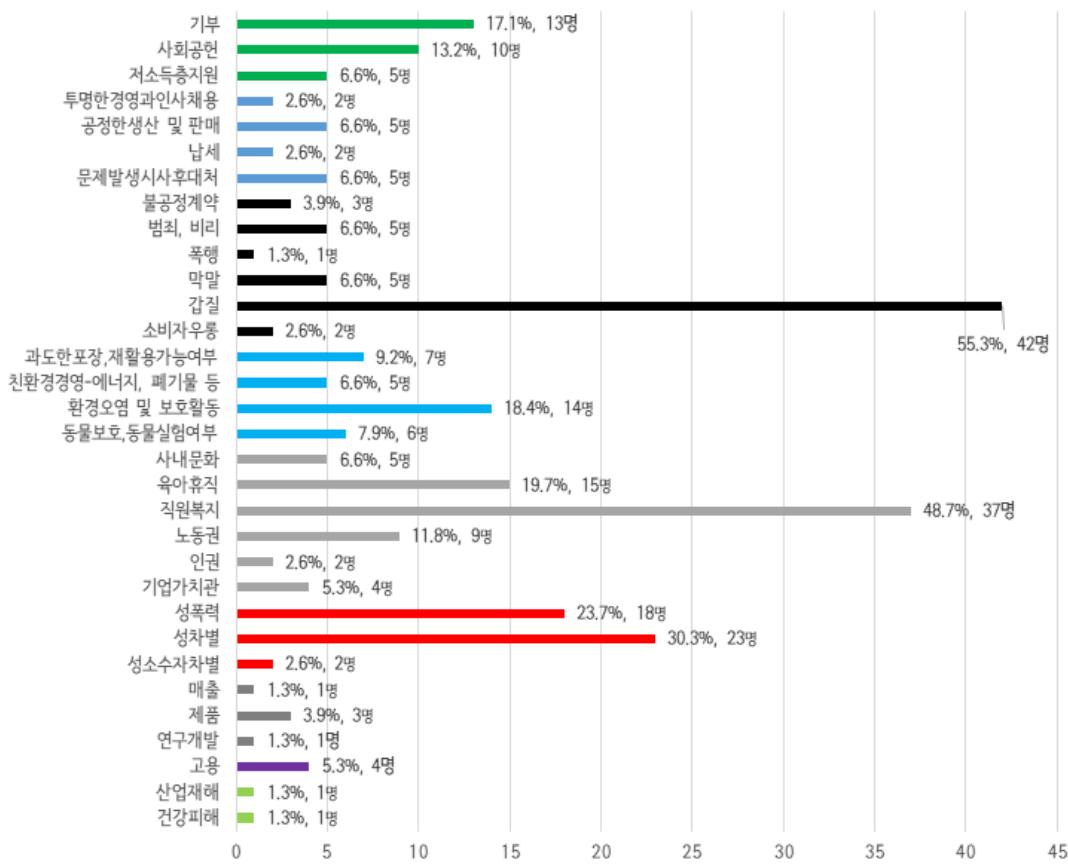
객관식 중복 선택으로 관심이 있는 K-SDGs 유형을 골랐을 때,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성평등 보장을 선택했다 (57.9%, 44명). 그 뒤를 이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53.9%, 41명), 불평등 해소(46.1%, 35명),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43.4%, 33명), 빈곤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39.5%, 30명), 인권·정의·평화(36.8%, 28명)가 많은 선택을 받았다.

#### \* 그 외 항목

- 기후변화 대응(32.9%, 25명),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31.6%, 24명),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28.9%, 22명), 해양생태계 보전(23.7%, 18명), 포용력 있고 안전하며 화복력 있는 도시와 주거지 조성(23.7%, 18명),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 증진(22.4%, 17명), 육상생태계 보전(22.4%, 17명), 자구촌 협력 확대(15.8%, 12명),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14.5%, 11명),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13.2%, 10명),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구축(6.6%, 5명)

#### □ Q6. 기업행동에 대한 관심도

주관식 중복 응답으로 분석이 꼭 필요한 기업행동을 물었을 때, 가장 많은 응답자가 갑질(55.3%, 42명)을 대답했다. 그 뒤를 이어 직원복지(48.7%, 37명), 성차별(30.3%, 23명), 성폭력(23.7%, 18명), 육아휴직(19.7%, 15명), 환경오염 및 보호 활동(18.4%, 14명), 기부(17.1%, 13명)가 많은 대답을 받았다.



#### \* 그 외 항목

- 사회공헌(13.2%, 10명), 노동권(11.8%, 9명), 과도한 포장 및 재활용 여부(9.2%, 7명), 동물보호 및 동물실험 여부(7.9%, 6명), 저소득층 지원 · 공정한 생산 및 판매 · 문제 발생 시 사후대처 · 범죄 및 비리 · 막말 · 친환경경영 · 사내문화(6.6%, 5명), 기업 가치관 · 고용(5.3%, 4명), 불공정계약 · 제품(3.9%, 3명), 투명한 경영과 인사채용 · 납세 · 소비자 우롱 · 인권 · 성 소수자 차별(2.6%, 2명), 폭행 · 매출 · 연구개발 · 산업재해 · 건강피해(1.3%, 1명)

## 2. 시민단체 인터뷰

본 연구는 기업의 행동을 평가하고 관찰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와 깊은 관련이 있다. 현장에서 기업의 잘못된 행동을 규탄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활동을 진행한 시민단체의 경험과 의견을 듣고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 □ 시민 활동에서의 언론 보도

Q. 시민사회에서 확인된 사건을 공론화 시킬 때, 언론사에서 협조가 원활한 편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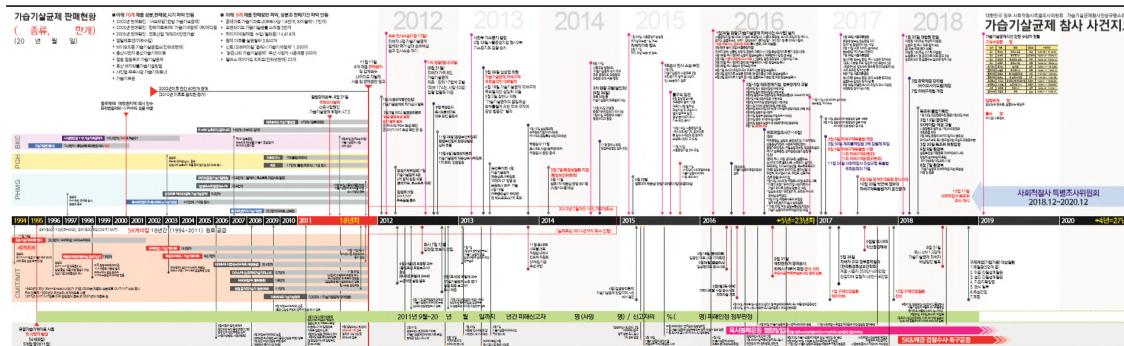
A. 가습기 살균제 문제의 경우에는 공동대표님 중에 민변에 계신 황정화 대표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환경보건학을 전문으로 하는 백도명 교수님께서 의학적, 과학적, 논리적 부분을 다뤄주십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운영위원분들이 역할을 해주셔서 고소,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에 사건을 알립니다. 기자회견을 열면서 언론 보도 요청을 하면 언론사에서 취재해가는 방식입니다.

Q. 그렇다면 언론사의 협조는 꽤 원활한 편이군요.

A. 초창기에는 보도가 잘 되죠. 그런데 뉴스가 뉴스를 덮는 게 사회의 현상이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얘기가 조금 죽어요. 그러다 또 사건이 터지면 언론인이 또다시 관심을 가져요. 희한하게 이 언론 보도라는 게 이슈 있을 때만 잠깐잠깐 보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Q. 보도가 항상 많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나중에 한 번에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정리된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지도'를 만드신 건가요?

A. 시각디자인 전공자로서 시각화 자료가 가지는 힘을 알아요. 세밀하지만 빠지면 안 되는 자료를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지도'로 만든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은 70~80%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거든요. 나머지 부분도 보도에 녹아나 있는 부분들인데, 사건의 흐름을 잘 알지 못하면 맥락을 파악하기가 참 어렵죠.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할 때 정확한 시기와 숫자가 확인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만든 거예요. 다 정확하게 확인이 된 거거든요. 표만 보면 해독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포인트를 설명해주면 연결이 잘 되죠. 필요할 때는 키워드 위주로 정제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정보를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죠.



〈가습기 살균제 침사 사건지도〉 가습기 살균제 침사의 시작이 된 제품 생산 시점부터 현재까지 기업의 대응과 보상, 정부의 정책, 피해자 집계 수 등의 내용을 담아 사건지도를 작성했다. ©이성진

**Q. 공론화를 위해 주로 활용하는 매체가 언론인가요?**

A. 네. 기본적으로 언론 보도가 우선이죠. 센터 홈페이지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긴 하는데,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대부분 언론 보도자료고 추가로 보고서가 올라가요. 그리고 피해자들과 소통을 위해서는 네이버 뱅드를 활용합니다. 오프라인으로 항의 행동도 진행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자전거 타면서 지역마다 고발장, 민원접수를 하면서 올라갔던 행군이 있었죠.

**Q. 언론 보도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으셨나요?**

A. 이번에 애경 직원의 ‘가습기 살균제 항의 뱅드’ 사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건을 한 언론사에서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단독보도로 내보냈는데 보도내용이 피해자들의 울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마치 애경의 변론을 들려주는 것처럼 되어 버리면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애경 직원이 피해자 부모를 사칭해서 가습기 피해자 밴드에 잠입한 사건인데, 피해자 부모라고 밀한 것이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 관련된 분들이 함께 참사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뱅드인데, 아무나 들어가는 사이트여서 들어가서 봤다는 식의 설명에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A. 그리고 애경이 무슨 일을 꾸몄냐면, 그리고 나서 2~3주 후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기자들이 왔고 기사가 6~7건 정도 나갔죠. 그런데 갑자기 애경이 해외에 있는 어떤 나라에다가 기부했다는 기사가 40건이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언론이 기사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여태 들어봤고 알고 있었는데, 직접 겪어보니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정론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언론사들의 중복 보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문제를 다룬 기사들이 ‘밀어내기’를 당한다는 것이죠?**

A. 네. 기사 밀어내기를 한다는 거죠. 요즘 친구들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잖아요. 최소한 언론들이 자발적으로 기사인지 광고인지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광고성 기사는 가치를 두지 않도록 해서, 기사를 검색할 때 필터링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있어야 합니다. 지금, 언론 보도자료들을 생산하는 데 어떠한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 불매운동과 기업의 대응

Q.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서 옥시 불매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A. 2015년까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단체가 모여서 옥시 불매운동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2016년이 넘어가면서 타 단체들과의 연대가 만들어지면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생겨났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불매운동 같은 거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많아졌고, 참여연대, 경실련, 그리고 많은 단체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본격적인 옥시 불매운동이 시작된 것이죠.

Q. 불매운동이 진행되면서 기업의 대응은 어땠나요?

A. 처음에 불매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옥시가 콧방귀를 끼쳤죠. 그러다가 나중에 난리가 난 거죠. 결국 2017년이 되어서 옥시가 생활제품 대부분을 생산 관리하던 사업을 접으면서 이 사업이 LG생활건강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옥시가 불매운동 될 때 애경이 컸어요. 애경은 그 당시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으니까. 우리나라 생활 물품 만드는 곳들이 비슷해요. 옥시, 애경, LG생활건강. 지금은 모두 문제가 밝혀졌지만, 옥시 사건만 터졌을 때는 애경, LG생활건강이 반사이익을 봤죠.

Q. 불매운동을 진행할 때도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는 게 필요하겠네요.

A. 네. 그래서 우리는 LG생활건강이나 애경에 대한 문제도 알리고, 책임 묻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LG생활건강은 BKC 물질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서 죄송하다 사과는 했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이라든지 이런 건 참여를 안 하고 있죠.

Q. 기업과 피해자 간의 소통은 잘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그리고 대응과 보상절차를 발표한 것은 잘 지켜지는 편인지도 궁금합니다.

A. 기업 중에 피해자와 제대로 소통을 하는 기업은 본 적이 없습니다. 우선 사건이 발생하면 기업은 사과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과하면 본인들이 했다는 거니까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받는 과정에는 피해자 조사, 세포실험 등 다양한 절차가 있죠. 그래서 피해자로서는 입증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도 2017년이 되어서야 피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은 처음에는 빨빨하다가도 피해가 입증되고, 소송하고, 정부가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면이 언론에 계속 노출되기 때문에 합의를 위한 대응이 빨라집니다.

A. 기업과 소통을 위해서 피해자들이 위원회 조직하는데, 처음에는 불매운동, 시민운동이 시작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시작할 때는 신경을 안 쓰죠. 소통 채널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자 활동이 지속되면서 소통 채널이 열린 거예요.

## □ 시민운동의 애로사항 및 중요성

Q. 시민운동을 진행하면서 겪으신 애로사항이 궁금합니다.

A. 큰 사고에서 기업들이 치는 장난 중의 하나가 보상을 서로 다르게 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엔 일부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98%가 합의했다는 기사를 내는 거죠. 그러나 보니 피해자 간의 입장차 이가 점점 더 생기고, 힘든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죠. 그래도 제 생각은 피해자분들은 결국 다 안고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환경성 질환은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항상 가장 시급한 분들 먼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머지 피해자분들도 피해를 규명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가야죠. 어쨌든, 그들을 위한 거니까. 혹시 생각이 다른 피해자분들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이런 활동이 인정을 받지 못해도 그것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Q. 왜 시민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국회 정문 앞,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하는 사람들 매우 많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많죠.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진실과 억울함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습기 살균제는 피해 규모도 크고, 피해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보니 어딘가, 누군가는 시민 활동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시민단체들이 하는 일은 처음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중요성을 인지하고 빠르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돋는 거예요. 빠르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증거가 다 사라졌겠죠. 그게 관리와 기록의 중요성이에요. 시민 활동의 중요성은 어떤 문제를 같이 알리고 해결해나간다는 점 같아요.

## 3. 기자 설문 조사

연구 초기에 연구 내용 및 방법론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기자분들께 설문을 부탁했다. 연구대상 기사를 작성한 기자 중 기사 수, 기사 내용, 논조(긍부정) 등을 기준으로 137명의 기자분께 연락을 취했다. 뉴스레터 매체인 stibee를 통해 서식을 만들고 우리 연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6개의 설문 항목을 포함하였다. stibee에서 제공한 자체통계에 따르면 137개의 메일주소 중 135개의 메일에 발송하였고 그중 37.8%에 해당하는 51명의 기자가 메일을 열어보았지만, 누구도 답신을 주지 않았다. 기자님의 의견을 듣기 전에 기자분들께 의견을 들을 방법부터 강구해야 했던 것 같다. 후속연구에서는 일대일 인터뷰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1) 설문 대상 : 연구대상 기사 작성 기자 137명

(2) 설문 조사 질문지

- 기업 관련 기사 작성 시 어떤 방식으로 취재를 하시나요? (사건·사고, 보도자료 등)
- 기업의 부정적인 행동 또는 기업이 숨기고자 하는 사실을 취재할 때의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 기사 제목을 중심으로 기사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 정보 전달 매체로서 언론이 기자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기타 조언하고 싶은 점, 연구 개선 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의견 제공자로서 개인 정보(소속, 이름) 공개 동의 여부를 알려주세요.(O/X)

(3) 설문 조사 URL : <https://stib.ee/XGs1> (19.12.10 발송)

#### 4. 기업 설문 조사

기업의 의견을 듣기는 어려웠다. 기업별 사회공헌, 고객관리,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료조사 과정에서 UN Global Compact 한국협회의 기업 설문 조사 자료를 발견했다. 기업의 의견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설문 조사 결과를 첨부한다.

- (1) 발행 기관 : UN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2) 자료명 : 2019 코스피 100대 기업 SDGs 이행 현황 설문 조사 분석  
(3) 주요 내용 : SDGs 이행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이행 사유, 이행 시 애로사항 등

##### □ SDGs 이행 필요성

기업이 SDGs 달성을 위한 핵심주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9.5%가 긍정(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 답변을 했다. 그 외에도 SDGs 이행은 기업경영에 필수적이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이는 비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재무적 요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데 긍정 의사를 표했다.



##### □ SDGs 이행 시 이점

복수 응답으로 물었을 때 SDGs 이행의 이점으로 기업 지속가능성 강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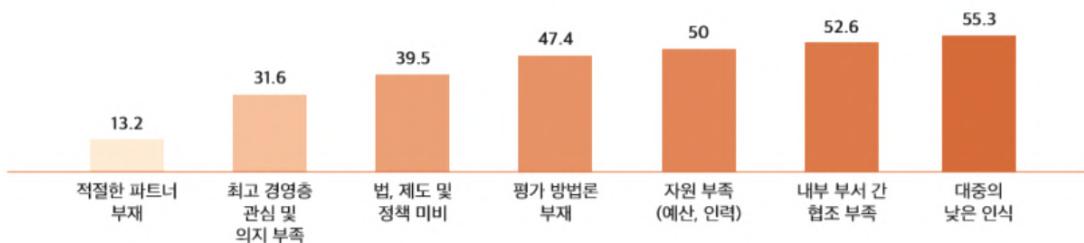
##### • SDGs 이행은 기업에 어떤 이점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 □ SDGs 업무추진 시 애로사항

복수 응답으로 물었을 때 SDGs 업무추진 시 애로사항으로 대중의 낮은 인식을 가장 많이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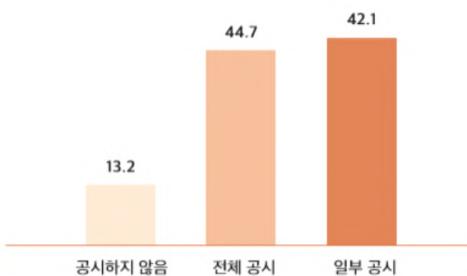
• 귀사가 SDGs 관련 업무 추진 시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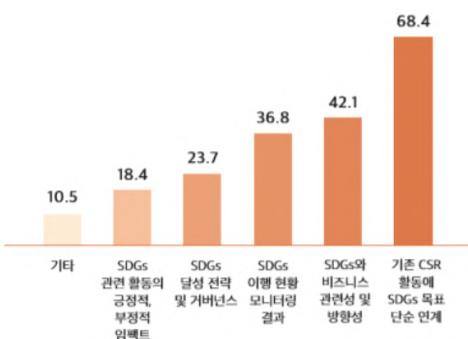
## □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공시의 현황 및 중요성

이행 활동의 공시 현황을 물었을 때 일부 공시가 42.1%, 전체공시가 44.7%, 공시하지 않음이 13.2%였다. 주로 CSR 활동에 SDGs 목표를 단순 연계하는 방식으로 공시하고 있었다. 또한, 복수 응답으로 물었을 때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공시는 고객 및 소비자 신뢰 구축에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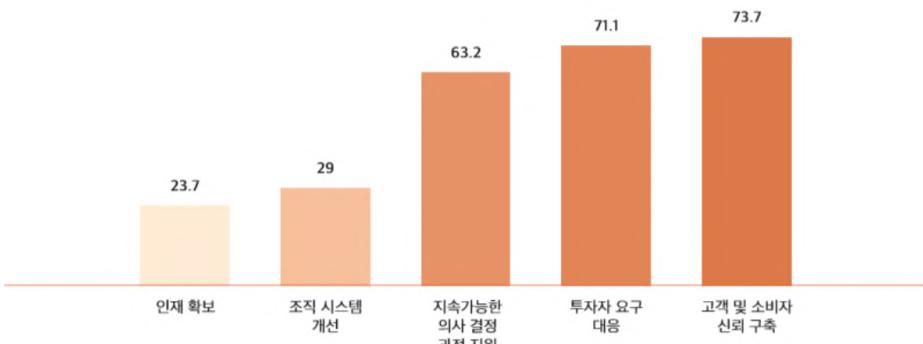
• 귀사의 SDGs 이행 활동은 외부에 공시하고 있습니까? (%)



• 귀사는 어떤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



•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공시는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 본 기업 설문 조사는 UN 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의 연구 결과입니다.

## 5. 국회 주제문 요청

□ 결국 본질은 투표다 : 신수낭(국회 비서관)

시장과 정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촉발된 불매운동은 유니클로의 예산 순익을 1,000억 원가량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국회에서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에서는 국산화를 위한 R&D 예산을 편성했다. 정치적 사안이 시민들의 지지를 통해 동력을 얻고 다시 정치권에서 그 실행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형태가 된 사례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평범한 개인들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근래의 방식이 정치권의 대응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불매운동이 과거보다 더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게, 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정치권의 관점 역시 시민들의 자발적 여론 형성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화폐투표는 정치권에서 투표의 의미와 크게 괴리되어 있지 않다. 대중(소비자) 다수가 공감하는 가치, 방향성에 의해 결정되는 소비패턴 역시 정치권이 지지를 얻기 위해 여론의 지향 가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와 닮아있기 때문이다. KT 아현지사 화재의 경우, 국회의 주요한 논의점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피해를 입은 국민 다수의 상황과 그것을 지켜본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으며, 여론에 따라 국회에서도 청문회 등을 진행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나아가 국회의 대응 방식은 여론에 대한 단순 대응에 그치지 않고 사안에 따른 법·제도적 장치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소비 운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할 경우, 기업에 대한 규제책 혹은 타 경쟁사에 대한 진흥책과 같은 제도적 장치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일제 불매운동을 통해 개별 시민들이 화폐투표에 대한 효용성을 확실하게 느낀 만큼 이러한 경향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또한 수동적으로 시민들의 여론에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가치 중심의 포용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기업 스스로가 사회적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가치 중심적 경영을 통해 더 큰 수익 창출을 가능케 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가치지향 경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세제 혜택, 조달사업에서의 가점 등 제도적으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일은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소비자 운동이 문제해결과 재발 방지를 늘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 정부의 초기 대응이 원활하지 않았고,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조차 법사위에서 계류된 상황이다. 21대 총선을 100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하면 개정안 통과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된다는 보장도 없다. 정치가 시장과 뗄 수 없는 관계라 함은 정치권이 기업과 같은 이해관계자와의 연결고리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결국 평범한 개인들의 조직된 힘이 유지되어야 정치권의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기업의 불매운동을 넘어서 시민들의 힘이 정치권을 향할 때 비로소 원하는 결과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경제 권력보다 시민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 이미 우리는 촛불혁명이라는 전례 없는 경험을 만들어낸 바 있다. 이에 후속하는 정치권의 학습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선거철만 넘기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 시민들의 조직력과 자발적 참여의 수준은 정치권이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작동할 것이다. 비록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선거지만, 기업을 향한 화폐투표가 선거에서도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 결국 본질은 투표다.